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5.



研究機關：全北大學校 附設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金 永 浩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CHEMISTRY

1954

RESEARCH REPORT NO. 10

1954

目 次

一. 序 論	3
1. 序 言	3
2. 새로운 世界秩序속의 韓半島	5
二. 南北對話	19
1. 南北接觸의 背景	19
2. 南北會談의 實現	22
3. 南北調節委의 合意事項	27
4. 南北關係中의 統一概念	31
5. 南北交流의 意義	38
6. 獨逸의 東西人의 交流	40
三. 觀光旅行의 實現方案	45
1. 觀光의 概念	45
2. 南北韓觀光旅行의 機能的分類	59
3. 觀光의 主体 (觀光客)	77
4. 觀光의 戰略的 時期	82
5. 觀光의 對象地域	88
6. 觀光旅行의 效果 및 影響	89

四. 觀光旅行提案의 戰略的意義	97
1. 南北交流로서의 觀光旅行의 實現提案	97
五. 觀光旅行의 實現을 爲한 協商戰略	102
1. 比韓의 政策路線 및 戰略과 戰術	102
2. 觀光旅行實現協商的 戰略	112
六. 結 論	121
1. 南北韓相互往來에 關한 合意書 (提議試案)	121
2. 結 言	125

一. 序 論

1. 緒 言

지금 우리들은 3백년의 歷史를 지닌 資本主義社會의 文明勢力이 50年 갓넘은 社會主義 勢力으로 부터 決死的인 挑戰을 받고 있는 不安과 混亂의 激動 속에서 分明히 「카뮈」의 말 대로 <삶에의 絶望없이 삶에의 希望없다>라는 그 한 가닥의 希望을 바라고 살아 가고 있는것 만 같다.

제 2 차 世界大戰後 4半世紀 동안에 敗戰의 窮乏속에서도 乾坤一擲 奮然히 再起한 日本과 大陸全土를 아시아의 共產主義로 變裝하고 社會主義 文明의 核勢力으로 國際社會에 登場한 中共은 美蘇와 더불어 極東地域에서 四角形的 勢力構造를 굳혀가고 있는것이 列強의 對陣現勢이다.

뿐만 아니라 이 4強의 綜合的 影響力이 네 方向으로 부터 內向하는 對角線의 交叉點이 바로 우리 韓半島에서 맞아 떨어지게 된다. 그 樣相은 冷戰秩序에서의 東西對決 關係로부터 解氷共存의 協助무드로 平和의 색이 트게되었다. 그 要因은 美國勢力의 對外介入 過剩으로부터 自律的 抑制傾向과 蘇聯과 日本의 脫이데올로기의 實利追求의 外交路線과 中共의 國際政治에의 迎入 登壇으로 인한 4強의 均衡牽制關係가 이것이다.

따라서 分斷된 우리 南北韓은 모든 局面에서 이 4強과의 相互 函數關係上에서만이 檢討되고 解決지워 나갈 宿命的인 位置에 놓여

지게 되었다.

이러한 前提와 條件下에서 本主題인 「南北韓 觀光旅行의 實現 및 發展方案」이란 課題가 現時點의 國際政治 狀況下에서 果然 期待可能性의 命題인지 어떤지는 且置하고 제 2차 共同委員長 會議에서의 南北調節委 合意事項에 基礎하여 그 具體的 方案의 政策的 理論과 技術的인 實踐方法을 研究하여 當局에 建議함에 目的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져 한다. 즉 民族的 念願인 單一生活圈 形成을 爲해서는 文化 社會的인 交流로서의 觀光을 實現하고 發展 시킴으로써 相互間의 不信을 解消시키고 信賴의 바탕 造成으로써 祖國의 統一을 爲한 政治的 統合에의 段階的 推進에의 整地作業의 一助로하고져 함에 있다.

또한 모든 交流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南北間의 相互往來時에 予想되는 問題點과 北韓 共產主義者 와의 接觸에서 克服해야 할 問題點에 對備하는 戰略을 事전에 講究하려는 意圖에서 임을 미리 밝혀 두고져 한다.

그러나 이러한 目的과 意圖에서 일지라도 本 主題의 研究에 있어서 는 어디 까지나 客觀的 科學性을 探究하는 立場에서 分析하고 評價하고 綜合해서 檢討하려고 함에 있음은 筆者의 基本姿勢이나.

그렇나고는 할지라도 未來를 내다 보는 展望이며 占을치는 格의 事項도 있고 또한 共產主義者들을 相對者로 한 對話로서 이루어질 性質의 것인만큼 果然 科學的 根柢위에서 만이 樹立해야 할 政策的 資料로서 값어치 있는 빛을 보게 될는지 어떨지는 未知數

일뿐이다. 또한 우리의 對話의 相對者인 北韓은 異邦보다도 더 어려운 隔差와 異質的 存在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마음의 接近을 容易하게 許容치 않는다는 現實을 直視하면서 漸次的 段階的으로 相互不信을 解消하고 現實事態를 現實대로 肯定하면서 理解와 相互 信賴를 갖게 되도록 努力하기 爲한 方法의 하나로서의 意義를 內包하고 있다.

그러기 爲해서 本主題의 研究는 世界秩序의 變化에 副應하는 政策的 產物인 만큼 우선 方法論으로 國際政治的 環境論 부터 分析 하려고 한다.

2. 새로운 世界秩序속의 韓半島¹⁾

世界秩序의 두개의 頂上 중 自由陣營의 代表的 位置에 있는 美國의 닉슨大統領이 71年 7월에 아시아에서의 共產陣營의 超強大 國인 中共訪問을 發表한후 72年 2월에 北京을 訪問함으로써 兩陣營의 平和共存은 現實化되었다.

잇달은 5月末의 소聯訪問을 통해서 새로운 世界秩序 形成을 위한 <首腦外交>를 展開하였다. 이로써 世界의 3極體制는 構築되었다. 뿐만 아니라 닉슨 美大統領은 中, 蘇의 訪問에 앞서 英, 仏, 西獨, 및 日本등 主要 友邦國 首腦들과 會談을 가짐으로써 整地作

註1) 國防研究 第15卷 第1号(1972.6) 두개의 頂上會談과 韓國, 參照,

業도 끝 내놓고 訪問했었다. 이러한 두개의 頂上會談의 目的이나 意圖가 무엇이었던가? 여러 側面에서 想定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의 主要한것은 3大強國 相互間의 關係安定化 였다. 즉 그것은 核戰爭의 回避로서 人類共存의 希望을 現實 肯定속에서 發見해 보자는 平和指向의 努力이었다.

이것이 바로 美, 소, 中共, 日本 및 西歐 등 五大勢力圈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勢力均衡의 多極化 體制의 秩序定立 作業이다. 이러한 國際勢力의 潮流는 核時代가 要請하는 論理的 結論이며 「힘의 均衡」이 一時的으로나마 持續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힘의 保有國」으로서 扞할 수 있는 賢明한 措置이며 「갖는 나라」로서도 現狀 維持가 그들의 國利에 合理的이란 것은 「우리로서도 首肯이 간다.

따라서 強大國들은 從前까지의 絶對的 安全 保障策을 止揚하고 相對的 安全保障으로 그 指針을 돌리게 되어 軍事的 對決보다도 政治的 協商으로 競争과 協調를 모색 하면서 相互 牽制作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不完全한 것이기는 하나 平和의 幻想이 維持되고 「이데올로기」보다도 國家的實利를 또 같은 陣營 속에서도, 自己國家의 利益을 더욱 重要視하게 되는 이른바 「脫이데올로기」的 國際政治의 形成過程이 오늘날의 現實이다.

이와같은 多極化體制의 構築이 世界的으로 進展되고 있는 現象은 아시아地域에서는 4大強國의 對角關係로 形成되어 從前과는 判異한 樣相으로 激變하게 되었다. 이를 分析해 보면

(1) 4 大國間의 힘의 不均衡關係가 顯著해진다. 즉 美, 소는 다 같이 政治的, 經濟的 또 軍事的으로 超強大國임은 自他가 인정하는 嚴然한 事實이다. 이에대해서 中共은 政治大國으로 登場했고 日本은 단순히 經濟大國으로 成長되었다.

더우기 日本과 中共의 軍事的 힘은 美, 소 兩國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隔差가 擴大되리라는 것은 專門家들이 展望하는 바라고 한다. ²⁾

(2) 四大國間의 相互交流와 協力關係가 매우 急速度로 進展되어 갈것이라는 點.

즉 冷戰時代에는 美와日, 소와 中共間의 交流乃至 協力만이 있었다. 그러던것이 中, 소紛爭이 일어나고 美, 소間에 接近이 試圖되기 시작할 무렵을 契機로 美와 소聯 및 美와 日本間의 交流로 그 構造가 變形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또 美, 中共接近이후에는 美와소, 美와日本間의 相互交流以外에 美와 中共, 日本과 소聯間의 協助關係가 追加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日, 中共의 接近이후에는 美와소, 美와日, 美와中共, 日本과 소聯, 日本과 中共, 소聯과 中共間의 相互交流와 協力關係가 多樣하게 展開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바야흐로 開始하려는 準備段階에 있다고 한다.

註2) 前掲 國防研究, P.190.

(3) 四大国間의 相互牽制作用關係 現時点의 多極化 現象속에는 過去의 冷戰時代 보다도 相互牽制作用이 매우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는것이 特徵이다. 즉 中共의 進出에 대해서는 美, 소, 日이 견제하며 소聯의 進出에 대해서는 美, 日, 中共이 견제하게되어 또한 日本의 軍国化 可能性에 대해서는 美, 소, 中共의 牽制가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美, 소 兩國의 支配体制에 대해서는 日本과 中共의 挑戰을 받고 있는것이 國際政治의 現況이다. 이와같은 相互牽制作用은 結果적으로 國際的 緊張을 緩和시킴으로써 武力戰爭의 勃發을 最大限으로 抑制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어느 側面에서 보면 平和指向的이며 可能한限 緊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現狀凍結을 希望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國際情勢의 展開가 앞으로 우리 韓半島에서 어떻게 作用할 것인가? 數多한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다. 그러한 宿題를 分析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4) 韓半島에 미칠 影響

(가) 美國의 立場에서 美國은 닉슨大統領의 非美國化政策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면서 對中共接近을 試圖하였다. 이러한 美國의 政策은 周邊에 있어서의 緊張緩和가 必要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韓半島의 現狀維持에 依한 南北韓間의 平和維持가 가장 重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美國은 韓半島 全体가 反美的 存在가 되거나 反美的인

國家手中에 들어 가는 것 만은 坐視傍觀할 余地가 없고 끝내 反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적어도 南韓이 美國과 友好關係를 유지해 나가기를 願하고 또한 그程度에서 滿足하며 北韓까지를 그들의 勢力 밑에 끌어 넣기를 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基本政策이었다. ³⁾

더우기 美國은 軍事的介入을 最少限으로 줄이면서 韓半島에서의 分斷狀態의 安定을 最大限으로 補強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이 各自의 政治秩序를 維持하면서 彼此 武力行使의 意圖를 갖지 않게 될 既階에까지 敵對意識과 敵對關係를 減少시킬 것 그리고 그方法으로서 南北韓接觸이 시작되고 擴大發展될 것 또한 南北韓이 다 같이 軍事力을 最少限으로 保有할 것 등을 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⁴⁾

뿐만 아니라 國際적으로도 南北韓이 共存을 前提로 列強間에서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公式化 하려는 氣味가 없지도 않다.

이와같이 美國의 政策은 韓半島의 分斷現狀을 凍結시키는 國際政治的 「힘」關係의 構造的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더욱 促進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美國政策의 方向轉換은 確實히 우리 立場에서 볼때엔 <아이로니칼>한 豹變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中共은 韓國戰

註 3) 政經研究 1972.8. 서울=平壤政治會談이 投射하는 國際關係
P. 55 (李承憲)

註 4) 前掲書 P. 60

爭 당시에 <義勇軍>이란 名目下에 韓半島를 侵略했었다. 그 당시 美國을 우리를 援助해서 우리와 힘을 합해서 中共軍을 擊退시키는데 에 피를 흘리고 많은 人命을 잃으면서 싸웠다. 그러기에 美國은 UN에서 앞장서서 中共을 <侵略者>로 낙인 찍었다. 그리고 다시 美國은 中共의 侵略이 있을것을 予想하고 우리와 韓美相互防衛條約을 맺고 만일 中共이 또다시 韓國을 侵略한다면 의연하게 싸울것을 뚜렷이 했었다.

이와같이 中共은 일찌기 韓國의 敵이었고 同時에 美國의 敵이었다. 그러한 中共임에도 不拘하고 韓國으로선 共同防衛의 가장 큰 盟邦인 美國의 닉슨大統領이 北京을 찾아 갔다는 것은 盟邦인 韓國과 의 團結에 큰 變化를 自招했고 또한 韓國의 安保에 一大變革을 가져오게 됐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들은 옛생각이 떠오른다. 第2次大戰後 8.15解放을 맞이했을때 大韓各處에서 불어지던 童謠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서니 조선은 조심하라>는 그 眞義를 想起할 수 있다.

더우기 中共이 UN에서 自由中國을 내쫓고 安全保障 理事會의 理事國이 되자 中共은 이른바 多極體制의 主人公으로 登場하여 北韓의 對南赤化 統一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이른바 <統一八個項>을 支持하고 나섰던 것이다.

中共의 이러한 態度와는 對照的으로 美國은 北韓의 共產政權을 <DPRK>라는 名稱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北韓이 美國과

5)

어떠한 關係改善을 맺고 싶어 한다는 風聞까지 나돌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美國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아시아 地域에 配置시키고 있는 軍事力을 縮少시켜 나가고 있다.

한때 75 만을 헤아리던 아시아地域의 美軍은 72年末 現在 20 만명 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韓國에서도 그 例外는 될 수 없었다. 이미 2 만명의 美軍이 減縮되었다. 또한 두 개의 頂上會談이후 韓國으로 부터의 美軍의 撤収가 이 以上 없을것이라는 아무런 保障도 없다. 더우기 美國은 73年 會計年度 부터는 現在의 義務兵制度를 志願兵制度로 轉換시킬 것을 計劃하고 있다고 한다.

이 制度가 實施되는 날에는 美軍의 絶對的 數字가 減縮되기 때문에 駐韓美軍의 撤収가 앞으로 있을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 될 것이다. 最近의 報道에 依하면 美民主黨上院 院內總務인 「마이크 맨스필드」議員은 3月15日 아시아地域에 駐屯하는 美軍兵力의 漸次的撤収와 美軍事使節의 廢鎖를 促求했고, 駐韓美軍 4萬名과 駐泰美軍 4萬5千名을 美, 中共間의 和解와 美, 越南介入終結로 因해 뿐만 아니라 韓國經濟發展에 큰 役割을 担当했던 美國의 經濟援助가 75年을 마지막 으로 完全히 끊어지게 된다. 6)

그 뿐이랴! 60萬 大軍을 維持하는데에 없어서는 아니되었던 軍事援助도 <韓國軍現代化五個年計劃>이 끝나는 75년부터는 끊어질

註5) 文化公報部, 國力の 組織化는 왜 必要한가? P. 15

註6) " 前掲書 . P. 25

것이라고 伝해지고 있는 形便에 있다.⁷⁾

美国은 現수에 있어서 莫大한 海外援助때문에 해마다 國際収支面에서 까지도 赤字를 보이고있는 形便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美国은 对外援助를 縮少시킬 수 있는 데까지 最少限으로 減少하려고 努力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韓國에 대한 美国의 經濟援助가 더 增加되리라고 期待할 수는 없는 与件下에 있다.

(나) 日本의 立場에서 日本은 太平洋戰爭에서 慘敗를 당하고 第2次大戰의 降伏国으로서 講和条約이후에 第1次大戰後의 独逸과는 正反對로 戰犯인 被告가 도리어 優待를 받게되었다. 그것은 戰後 冷戰時代에 美国의 核雨傘아래서 오로지 戰後復旧와 經濟的 再建에만 專念했고 韓國戰爭時의 漁夫는之利도 取했기 때문에 급기야 <세계의 經濟的 第三強>으로 까지 成長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이 65年의 韓日国交正常化를 契機로 韓半島問題에 또 다시 깊은 關心을 갖게끔 되었고 69年 11月의 <닉슨.사또> 共同聲明이후 韓半島問題에 대한 利害關係国으로서 登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日本은 <政經分離原則>이란 口實을 公言하고 經濟面에서 北韓과의 交流를 이미 開始했던 것이다.

또한 日, 中共国交正常化를 契機로 南北韓에 대한 等距離外交를 더욱 推進함으로써 自國의 利益을 取함과 同時에 이것이 韓半島에

註7) 文化公報部前掲書, P. 25.

서의 緊張緩和에 寄与가 된다고 그들은 一石二鳥格 効果を 노리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이를 우리立場에서 評價해 보면 日本이 韓國과의 距離만큼 北韓과의 距離를 좁혀겠다는 것은 韓國을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規定한 「韓日基本條約」을 알맹이 없는 것으로 變質시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뿐만아니라 68年<닉슨, 사또>共同声明에서 日本은 韓國과 台灣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保障과 直結된다는 것을 宣言함으로써 日本의 安全保障을 爲해서는 韓國과 台灣의 防衛에 可能な 모든 手段을 써서 이를 援助하겠다는 뜻을 公言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이미 台灣과는 國交를 끊고 韓半島에 있어서도 韓國과 같은 距離를 北韓에서도 維持한다는 外交를 展開한다는 것은 <닉슨, 사또>共同声明을 否定하게 된다는 結論을 是認하게 되었다.

日本의 이러한 豹變한 態度變化는 그들의 實利的 苦衷도 짐작 못할바 아니나 그 結果는 非但 韓日兩國間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韓美共同防衛體制에 까지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되어 結果적으로 우리의 <弱者의 卍念>만을 듣게 되었다.

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의 友邦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背理를 하고 나선 版局에 우리와는 對敵關係에 있는 소聯과 中共의 政略的 態度는 두말할것 없이 우리에게 對敵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分析해보겠다.

(다) 소聯의 立場에서 소聯은 韓半島에서의 美, 소間的 「힘」의 均衡을 考慮하여 美國과 더불어 戰後處理問題에 있어서 韓半島에 다

決定的 打撃을 준 姿勢를 取해 왔음은 지금은 周知된 事實이다.⁸⁾

그것은 韓半島問題가 自己側 希望대로 處理되지 못하면 美, 소間의 世界政治 및 軍事戰略의 均衡을 잃게 되기 때문에 소聯은 對北 韓政策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國政策과 비슷한 形式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려고 努力해 왔다.⁹⁾

그렇다고 해서 소聯이 韓國에 대해서 北韓이 이미 公言하고 또 한 더욱 強化하려는 對南人民革命 戰略을 否認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소聯의 処地로서는 核戰爭으로 發展할 危險性 있는 美國과의 直接對決만은 可能的 限 回避해 간다는 立場에 있을 뿐이다.

또한 소聯은 日本이나 中共과의 關係로 보아서도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政策을 促求함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는 南北韓間에 敵對關係가 持續됨에 따라서 必然的으로 惹起되는 武力衝突의 可能性을 減少乃至 除去함으로써 이것이 또한 나아가서는 日本의 軍事力強化의 口實을 除去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美, 中共의 接近을 契機로서 万若 中共과의 戰爭에 있어서 軍事的勝利를 소聯이 期待할 수 없는 現狀況下에서 <아시아의 火藥庫>로 指目되는 韓半島에서 南北韓의 安定化를 소聯으로서도 우선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註 8) 1945.2. 알타秘密 協定에서 日本軍撤収武裝解除를 口實삼아 軍事分界線으로 38線劃定과 韓半島分斷등

註 9) 前掲政經研究, P. 55.

그러나 그렇다고 韓半島가 隣接된 國境線으로 連結된 地政學的 見地에서 反소의 政治秩序를 基本으로 하는 體制를 갖는다는 것은 소聯으로 서도 坐視容認하지 않을것 임은 疑함이 없을 것이다.

(리) 中共의 立場에서 中共이 共產世界의 아시아에서 主人公으로 登場했다. 中共은 前述한바와 같이 韓國戰爭에서 不法介入을 契機로 하여 韓半島問題에 깊숙히 関與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미끼로 北韓에 대한 影響力 形成에 最大限의 利權을 行使하고 있다. 特히 美, 소平和共存體制의 形成을 前後하여 發生한 中, 소紛爭에 있어서도 中共은 北韓을 對소優位體制를 위한 하나의 因子로서 確保하고 有利한 高地的 利用을 하려 했다. 10)

特히 中共은 소聯을 牽制하는 한편 아시아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勢力의 後退와 이에 따라 代替되는 日本勢力의 登場을 막기 위해서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拍車를 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關係改善의 先行條件으로서 恆常 韓半島問題가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韓半島問題에 있어서 그들 相互間에 諒解할 수 있는 最大公約數가 現狀維持 外에는 다른 妙策이 없을 것이다. 즉 南北韓의 現狀維持야 말로 美, 中共間 또 中共, 日本間에서 利害關係를 같이 할 수 있는 最少限의 條件으로 된다.

여기에 있어서 中共은 北韓의 赤化統一을 위한 現狀打破의 中間

註10) 前掲 國防研究, P. 191.

段階로서의 現狀維持策을 戰略적으로 追求하기에 이르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

上述한 바와같이 우리 韓國을 에워싸고 있는 周邇情勢는 急激하게 變해가고 있다 特히 지난 冷戰의 四半世紀와는 달리 敵과 同志를 区分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友邦과 敵國을 分辨하기 힘들 程度로 激變해 가고 있다 .

이러한 情勢는 일찍이 우리가 體驗해 보지 못했던 深刻한 國際潮流의 挑戰임을 自覺하게 되었다 . 이러한 挑戰앞에서 우리는 強大國들의 恫威에 의한 犧牲物이 되지 않고 永遠한 獨立과 繁榮을 위해서 自主 自律的 努力이 그 어느때 보다도 切實하게 要請되고 있다 .

南北赤十字社間의 離散家族 찾기를 위한 赤十字會談이라든가 7.4 共同聲明을 契機로한 南北間의 對話는 바로 그 一環이다 . 그러나 對話가 곧 平和는 아니다 .

突로 思想과 理念과 體念과 體制가 極과 極으로 對立된 雙方의 對話는 참으로 어려운 對話이며 어느 모로는 對話없는 對決보다도 더 어려운 對決임에는 틀림 없는 事實이다 .¹¹⁾

하물며 北韓의 對南赤化統一 目標을 버리지 않고 하나의 爲裝된 平和攻勢의 手段으로서 對話를 逆利用하는 마당에서의 對決의 어려움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

註 11) 7.4 共同聲明에 앞서 發表된 李厚洛中央情報部長의 背景, 說明

그러나 第2次 南北共同調節 委員長會議에서의 合意事項에 基礎하여 앞으로 予想되는 社会的 文化的 相互交流로서의 具体的 方法的 하나인 觀光旅行에 關한 理論的 및 實務的 方案을 모색하고 검토함이 本論文의 趣旨가 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關係의 앞으로의 展望을 列強과의 關聯下에서 다시 檢討하지 않고 南北交流의 成就도 期待할 수 없는 相關關係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予測可能的 政策的 影響力을 占쳐 보기로 한다.

(마) 周邊列強의 政策展望

美國의 對中共接近策은 이른바 <平和의 波長>이라고 할 수 있다¹²⁾

美國과 中共이 平和的 手段에 依해서 相互關係를 解決하려는 政策을 變更시키지 않는限 또한 소聯과 日本이 平和共存政策을 追求하는限 南北韓關係는 漸次로 幅을 넓히게 될 것이다.

本來: 우리의 南北韓關係는 이러한 平和의 물결을 背景으로 하여 시작된 것이며 周邊의 強大國에 대한 感度는 相當히 높았다. 그러나 이 感度는 時間이 經過됨에 따라서 어느 程度까지는 減少될것이 予想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들 南北韓의 自主性의 增大現象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像想할 수 있는 美國의 政策이 77年以後의 政權交替에 의해서 孤立主義 原則에 依하여 支配되는 날이 온다면 또한 日本의 새로운 民族主義勢力이 抬頭하게 되어 美·日間의 關係가 現今과는

註12) 新東亞, 1973.2, 美國의 아시아政策과 展望(趙在瑾) P.78.

달리 円滿치 못하게 되는 날이 올때에는 우리는 우리 南北韓의 關係는 美·日·中·소의 對立關係에 의해서 우리는 그만 큼의 獨自的 進路를 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四角關係의 展望은 다음과 같이 變貌될 可能性도 內包하고 있다. 万若 中共內에 政變이 일어나서 從前까지의 民族主義의 路線을 버리고 中·소의 關係를 改善으로 이끌어 이른바 中共의 國際派가 執權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美·日·中共에 소聯이 合勢하는 所謂 三極關係를 形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形勢下에서는 南北韓關係는 円滿하게 進行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轉換期를 予想한다면 우리로서는 그時期가 오기 前에 서둘러서 同族間의 再結合을 爲해서 南北韓 相互間의 最大公約數인 共通點을 發見 모색함으로써 統合의 實을 거두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¹³⁾

換言하면 現在와같이 美·日이 同盟關係에 있고, 中共, 소聯이 各기 獨自的 路線으로 相互對立을 持續하는 三極關係에 있어서 中共, 소聯이 앞으로 政變을 契機로 政策變化를 일으키게 되어 世界 革命路線에 步調를 같이 하게될 때에는 北韓의 政策도 굳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北韓 爲政當局者들의 民族史的 當爲性에 立脚한 聰明과 예지에 依한 合意가 廣範하게 深化되어 統一의 核心에 까지 接近한다면 南北韓의 同胞的 분위기가 成熟되어 韓國의 平和的 自主統一이 獨自적으로 促成될 것이며 급기야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維持와 發展에 우리가 主導的 役割을 担當하게 될 것이다. 이는 結果의 으로는 韓民族의 <루네상스>로 될 것이며 世界의 低開發國을 代表하고 그들의 <해게모니>를 우리가 掌握하게끔 될 것이다.

註 13) 統合이 統一과 概念上 어떻게 区分해야하는 後述기로 한다.

二. 南北對話

1. 南北 接觸의 背景

7. 4 南北共同聲明은 <外勢에의 依存을 斷乎히 排除하고 自主的 平和的으로 祖國의 統一을 圖謀한다> 統一原則을 確認함과 아울러 서울 平壤間의 直通電話의 設置 南北調節 委員會의 構成을 合議하는등 「對話 없는 對決」 時代로 부터 「對話를 통한 對決」의 時代로 急進展했다.¹⁾ 이러한 劃期的인 對話를 促進시킨 直接的 契機는 71年 4月의 美·中共<핑퐁外交>와 그뒤 7月의 닉슨 中共訪問 計劃의 發表였지만 이보다 앞서 美國은 69年 6月의 「괘島」에서 밝혔던 「닉슨·독트린」에 依拠한 休戰線의 <韓國化> 政策이었다.

우선 당시의 北韓側 態度를 보면 68年 거의 1년에 걸쳐 武裝게릴라를 南派하여 韓半島를 一觸即發의 緊張狀態로 몰아 넣었던 金日成政權도 68年末 부터 69년에 걸쳐 武裝게릴라 南派의 直接 責任者 金昌鳳 民族保衛相 崔光 人民軍 總參謀長 許鳳學 對南工作 局長 金正泰 偵察局長 등 軍首腦를 追放하고 그代身에 對南工作의 總責任者에 「黨人派」 系列을 쥐고있는 金仲麟을 起用 「南朝鮮의 武力解放路線」으로 부터 65年 이전의 「平和攻勢路線」으로 轉換 했었다.

註 1) 李厚洛中央情報部長의 背景說明

이와같은 北韓의 對南工作의 路線轉換은 68年 한해 동안의 體驗을 통해서 武裝 게릴라의 南派에 의한 교란工作이 오늘의 韓國에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事實을 깨닫게 된 結果이며 또한 武裝 게릴라의 南派는 韓國防衛의 「決意」를 지키는 美國을 자극하고 오히려 駐韓美軍의 撤収를 지연시키는 使用밖에 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깨달았기 때문이다.²⁾ 한편 韓國側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韓國化>政策을 70年 8.15 光復節에 朴正熙 大統領의 「南北間의 善意의 競争」을 提議하는 聲明에서 처음으로 民族自律的 解決의 反應을 보였다.

그直後에 美國은 半年前인 2月에 있었던 美上院 外交委의 韓國關係 秘密 聽問會에서의 「포터」 駐韓大使 「부라운」 國務次官補(前駐韓大使) 등의 証言을 公表하기에 이르렀다.

「포터」大使는 北韓側의 對南工作戰術의 轉換에 關하여 「67年부터 68年까지의 間諜 게릴라의 南派에 의한 挑發的 戰術이 駐韓美軍의 增強과 對韓軍事援助의 增加를 招來했다는 結論에 到達한 結果, 北韓은 對南 侵略活動을 最少限으로 줄임으로써 「닉슨·독트린」의 適用을 방해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한 뒤 「南北韓의 對話가 可能的 範圍와 領域을 探索해 볼려는 見地에서 美國은 韓國首腦와 조용한 討議를 繼續해왔다」는 事實을 밝혔다. 그리고 그結果 「韓國側이 어떤 行動을 나타낼것을 必要로 하는 時期가 急速히 가까와 지고 있다」고 同大使는 確言하였다.

註 2) 新東亞 1973.2. 변모하는 韓國問題와 日本 神谷不二 P.86

따라서 朴正熙 大統領에 依한 南北의 「競争的 共存」의 提議는 明白히 이 「포터」大使의 証言의 延長線上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³⁾ 다시 2年後의 「南北 키신저」 相互訪問의 實現을 이미 予想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韓國側의 갖가지 予備行動에 대해서 北韓이 보인 具體的 反應과 態도의 變化는 71年8月6日의 「시아누크」를 平壤에서 맞은 歡迎集會 席上에서의 金日成 發言이었다. 曰「닉슨은 白旗을 들고 北京을 訪問하려 하고 있다」 「平和的 統一을 위해서는 民主共和黨도 包含하는 모든 政黨 團體와 接觸할 用意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南北接觸을 위한 첫째 條件이었던 「×××政權 打倒」와 「民主共和黨은 對話의 相對가 아니다」 라는 主張이 後退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72年2月の 닉슨 中共訪問의 美·中共 共同聲明에 대해서도 「立場과 態度에 있어서 原則적으로 差異는 있지만 國家가 平和的 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全般的인 國際緊張의 緩和에 도움이 되게 相互間의 關係正常化에 努力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⁴⁾ 라고 부드러운 態度를 나타냈다. 이러한 事實은 北韓의 「平和共存」을 처음으로 認定한 發言이라는 意味에서도 劃期的인 것이었다.

이러한 金日成政權에 대해서 美國은 北韓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正式 呼稱으로 부르도록 고치는 등 (DPRK) 金日

註 3) 前掲 新東亞, P. 86

註 4) 3月4日字 北韓로동신문 社說.

成이 보낸 反應에 答했다. 그리고 休戰線은 이러한 南北의 現實을 反映하고 武裝계 렬라의 南派, 푸에블로호 事件등 一觸直 殆의 軍事的 緊張에 韓半島가 들썩했던 68年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韓國 戰爭 이후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조용한 境界線이 되어 왔다. 그러나 거번의 銃擊事件이 일어난것은 앞으로의 放心을 警告해 주는 意義를 지내고 있다.

美國이 노렸던 休戰線의 「韓國化」는 이렇게 해서 進行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南北接觸의 背景을 이룬 國際政治 狀況이다.

2. 南北會談의 實現

南北對話의 始發은 「直接會談을 갖고 싶다.」 라는 「意思」를 南韓側「서울」에서 北韓側「平壤」의 金英柱 勞動黨 組織指導部長에게 傳達한 3月이었다.⁵⁾ 서울의 美大使館 通도 南北接觸의 本格化는 美·中共 共同聲明 直後로 보고 있다.

그러나 北韓側의 朴成哲 第二副首相에 依하면 71年 11月 무렵부터 「非公開속에 接觸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⁶⁾

11月이란 당시는 北韓이 對南路線을 大轉換했던 勞動黨中央委 第5期 第3總會時期와 一致되고 뿐만 아니라 12月 6日은 韓國政府가 緊急히 宣布했던 「國家非常事態 宣言」의 時期였다.

註 5) 前掲, 李厚洛部長의 背景說明

6) 前掲, 新東亞. P. 87. (神谷不二)

그 主役은 이른바 두사람의 「南北키신저」 往來로 極秘속에 進行되었다.

그리고 美·日 兩政府에 대해서는 4月中旬頃에 事전에 通告되었다.

7.4 共同聲明이 發表됨과 同時에 南北調節委員會가 設置되고 이미 直通電話가 개설 되었다. 共同聲明의 제1차적 核心的 效果는 南北間의 武力 不行使의 合意였다. 즉 「外勢에 依存하지 않고 武力에 依存하지 않는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한다.」는 統一原則에 合議를 한 以外에 「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 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것을 莫論하고 武装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한다.」는 것을 確認함으로써 우선 南北間의 軍事衝突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이 武力 不行使의 合意는 서울 平壤間의 直通電話의 作動開始와 南北調節委員會의 設置에 依하여 一層 效果的으로 뒷 받침 되어 가고 있다.

또한 國際法的인 側面에서 考察하면 傳統的인 國際法的 課題의 範疇에는 屬하지 않는 所謂 非國際法的 問題로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데에 南北關係의 特徵이 있다.

따라서 共同聲明의 署名에 있어서도 当事者는 「서울」과 「平壤」이란 이름이 使用되고 國名使用은 回避되어있다.

이것은 두말 할것없이 韓國 朴正熙大統領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7) 우리 韓國에 있어서는 “ One nation tow states ”는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의 目標도 “ One state ”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共同聲明에 調印하고 發表한 事實 그自体가 「唯一合法政府」인 韓國側과 「唯一正當國家」라고 한 北韓側의 從來의 「唯一國家」의 主張은 이제는 後退하고 서로 相對方的 存在를 認定하는 第一歩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前述에 引用한 外國學者의 見解는 8) 政治的 側面에서 만이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韓國政府側이나 國民들의 意識構造上에 담겨있는 單一民族 即 單一國家 라는 政治的 信念은 分斷된 現實을 肯定하면서도 民族的 念願으로서의 窮極的 目標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實의 國際政治的 環境 自体를 否定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現實을 肯定하기 때문에 이러한 不合理한 現實을 克服 止揚하고 念願으로서의 統一을 目標로서 그를 成就하려는 努力이다.

이러한 窮極的 目標을 成就하려는 問題는 어려운 「政治的 性格」의 問題인만큼 南北接觸의 初歩的 段階에서는 이러한 相極的 難題는 回避하려는 것이 오히려 統一을 爲한 誠實한 方法으로 보는 것이 民族的 悲願에서 이다.

몇 가지 具體的 事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共同聲明의 背景說明을 記者會見에서 행한 李厚洛 部長은 처음으로 訪問한 平壤

註7)

註8) 前掲 新東亞, 神谷不二

의 분위기에 關於 質問에 對答하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北쪽은 共產主義 制度의 完成을 目標로 努力하고 있다는것이며 南北의 比較에 대하여 發言한다는 것을 回避하고 싶다. 왜냐 하면 本人은 今後에도 北韓側과 對話를 繼續하지 않으면 안되는 立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것이 우리 政府의 公的 態度였다.

또 赤十字會談이 서울에서 처음 本會談을 열었을때 板門店으로 부터 서울까지 沿道에 즐비했던 50만의 市民들은 平壤으로 부터의 北韓側 代表團 一行을 拍手로 歡迎을 했다. 그러나 入北했던 南韓의 代表들은 거의 市民으로부터는 歡迎다운 환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못본체 冷僻한態度였고 그들은 無表情 그것이 었다.

한편 拍手로서 맞이했던 서울의 市民들도 本會談에서의 祝賀演說에서 北韓側 諮問委員들이 異口同聲으로 「우리 朝鮮勞動黨」 「우리 들 共產主義者들」 「우리 民族의 敬愛하는 偉대한 首領 金日成 元首」라고 되풀이 하는 바람에 韓國側이 回避하는 「政治」를 會談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텔레비전, 라디오로 全國의 안房에 까지 알려지자 幻想的 統一에 대한 希望의 期待는 一變하여 썩늘한 拒絕 反應을 보였던것임은 우리의 記憶에 싱싱하다. 바로 하루前에 北韓측 一行을 손을 흔들어 歡迎했던 市民들의 表情이 突變하고 이번은 一行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거의 無視하고 反應을 보이지 않는 모습에 그들은 그 엄청난 落差에 當황한 態度이기 조차했다.

이와같은 韓國 住民들의 拒否反應을 契機로 韓國의 新聞, 텔레비존의 北韓側에 對한 批判的 報道는 獨이 더진듯 넘쳐 나왔고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은 마침내 自重을 促求하는 「公翰」을 新聞社와 텔레비존, 라디오 에 떠올 程度이었다. 그 趣旨는 「南北對話는 單純한 商業的 저널리즘의 領域에서 다루어 지기에는 어려운 民族的 課題이기 때문에 自重自愛해 주기를 바란다. 不必要한 感情의 誘發로 南北對話가 疎外되는 不幸한 結果가 생겨 나지 않도록 協力해 줄것을 言論界에 바란다.」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想起되는것은 61年의 「베르린」 「障壁」이후 3年만에 東獨訪問이 許容된 西獨의 著名한 저널리스트 들이 쓴 <아득한 나라에의 旅行>이라고 題한 冊子속의 結論的인 한 句節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 발자욱 옮겨 놓을 때 마다 根本的으로 相異한 世界觀에 부딪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對面하고 있는것은 같은 歷史를 살고 같은 言語로 말하는 같은 民族의 一員이 아니고 아득한 孤島에 사는 사람들인것 처럼 印象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斷絶感」 속에서 그들이 끌어 낸 結論은 平凡한 것이지만 「다만 東西間에서 接觸, 接觸 보다 많은 接觸을 冷靜과 忍耐와 想像力을 가지고 되풀이 하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結論은 지금 막 接觸이 시작된 南北韓에 있어서는 더욱 切實한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接觸을 통해서 이미 서로가 異質的 世界를 構築하고 있는 相對측의 內容을 알면 알수록 南北韓

도 하나의 統一祖國을 向한 過程으로서의 共存型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3. 南北調節委의 合意事項

72年 11月 4日 平壤에서의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會議는 李厚洛 共同委員長과 그代辯人이 미리 밝힌바와 같이 「이번 會議에서 는 7.4 南北 共同聲明 以後의 南北關係를 全般的으로 검토하고 이를 幅 넓게 發展시키기 爲한 方案을 論議하며 懸案인 南北調節委員會 構成問題를 協議하게 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4日 午前의 세 번째 會談 끝에 그 成果를 다음과 같은 趣旨의 共同發表文을 公表하였다.

「會議는 하루 빨리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려는 念願에서 眞摯한 民族愛의 雰圍氣 속에서 協議를 進行한 結果 서로 理解를 深化시키고 一連의 問題를 풀어 나가는 데 前進를 이룩하였다. 雙方은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 南北 사이의 各分野에 걸쳐서 서로 힘을 합쳐 같이 事業을 하는데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이번 會議에서 雙方은 다음과 같은 問題에 대해 合意를 보았다.

(가) 雙方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問題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를 署名 交換하였다.

(나) 雙方은 서로 誹謗中傷을 하지 않기로 한 南北共同聲明의 條項에 따라 72年 11月 11日 零時를 期하여 對南對北 放送과 軍事

分界線 上에서의 拡声機에 의한 對南對北 放送, 相對方 地域에 대한 비라 撒布를 그만 두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雙方이 署名 交換하여 發効를 본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는 다음과 같다.

(1) 目的: 南北調節委員會는 7.4 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南北關係를 改善 發展시키며 各 分野에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등 合意된 祖國統一 原則에 따라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해나간다.

(2) 機能: 合意된 祖國統一을 原則에 따라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 南北의 政黨, 社會, 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 사이의 広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할 問題, 南北間의 經濟, 文化, 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問題, 南北間의 緊張狀態를 緩和하여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는 問題 및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取하여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宣揚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여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3) 構成: 雙方에서 各各 共同委員長과 副委員長 一名, 幹事委員 一名 및 委員 二名으로 構成하되 必要에 따라 委員數를 增加시킬 수 있다.

共同委員長은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으로 한다.

副委員長과 幹事委員 및 委員은 長官 또는 次官級으로 하되 事

前協議를 거쳐 各各 双方 共同委員長이 任命한다.

双方 幹事委員과 各各 幹事 二名으로 構成 되는 幹事會議가 双方 共同委員長の 委任에 따라 委員會 休會中 提起되는 問題를 協議決定하고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또한 事業 進陟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 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委員會를 두는데 그 機能과 構成은 双方의 合意에 따라 따로 規定한다.

그리고 共同事務局을 板門店에 두고 双方이 共同 事務局長 一名씩과 그밑에 必要한 數의 人員을 둔다.

(4) 運營, 會議는 二三個月에 한번씩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板門店에서도 할 수 있다. 幹事會議는 一箇月에 한번씩 進行하며 이밖에 双方의 合議에 따라 臨時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會議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한다. 委員會 會議와 幹事會議에 서는 双方의 合議에 따라 必要한 數의 專門委員과 共同事務局 要員을 參加 시킬 수 있다.

南北調節委員會의 最終合意는 双方共同 委員長 들의 合意文書에 署名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合意書는 双方의 合意에 따라 共同事務局을 통해 同時에 發表한다. 運營細則은 따로 定한다.

以上の合意書는 双方의 合意에 依하여 修正, 補完할 수 있다
고 伸縮性을 남겨 놓았다. 이밖에 어떤 事項이 또 非公開事項으로
合議되었던가?

李厚洛 委員長은 4日 板門店 歸着후에 記者會見席上에서 合意事項
으로 公表된것 外의 討議 內容을 質問받자 「広範한 內容이 討
議되었다. 例를들면 南北이 힘을 합쳐 言語 固有文化등을 共同開
發하는일 盛漁期에 北쪽 바다에서 明太를 共同으로 잡는일 등이 討
議되었는데 이는 당장 이루어 진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到達해
야할 目標을 規定한 것이다.

앞서 朴正熙 大統領도 金剛山 觀光事業의 共同開發 問題를 提起
한바 있었다.」는 趣旨로 答辯했다.

또한 이번 南北會議 事項中 「對外問題에 있어서도 共同步調를
取한다.」는 것이 具體적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가, 例컨대 우리의
對UN 外交, 對日, 對中共, 對소, 外交등에 앞으로 어떤 影響을 끼
칠것인가를 물는데 對해서는 「그 基本趣旨는 우리가 單一民族이니
비록 國土가 두쪽으로 分斷되었다 해도 單一民族으로서 誇示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誇示해 보자는 뜻이다. 例를 들면 國際體
育試合에 南北이 單一팀을 만들어 나간다면 좋은 古典藝術을 南
北이 힘모아 海外에 誇示한다면 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꼭 UN對策이나 外交에 直結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答하였다.

4. 南北關係中の 統一概念

韓半島 즉 오늘의 南韓과 北韓은 半萬年이란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大韓民族의 單一國家였다. 뿐만 아니라 世界民族史에서도 類例가 없는 平和愛好의 單一民族으로 이루어진 祖國이었다. 그러던 이 祖國이 外勢인 他意에 依해서 國土가 兩斷되고 民族이 分裂되었다. 이 苛酷한 國際政治勢力의 힘은 우리에게 同族相殘의 悲劇을 演出케 하였다. 그런 후로도 同族相互間에 對敵케 하였다.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和平케 하라고 壓力을 加하게 되었다.

이러한 評價는 지난 四半世紀 동안의 歷史 밑에 흐르던 底流를 숨김없이 폭로했을 뿐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世界 秩序의 變化가 우리 韓半島에 南北相互接觸으로써 關係安定化를 強要해 왔다. 그렇다고 列強들은 南北으로 分斷된 우리民族끼리 그들의 意思를 無視해서 까지라도 統合되기를 願치는 않고 있는 形便에 있는 것이다. 弱少民族의 悲哀 어찌 以外에 또 있으랴!

이제 우리들 南北韓은 四半世紀의 斷絶된 障壁을 뚫고 對話의 握手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平和的 統一을 絶叫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原則을 文書化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여기서 文書化시켰다는 것이 重要한 事項이 아니라 文書化하기에 이르른 南北相互間의 「마음의 共感」이 成熟되었다는 그 事實이 값비싼 評價를 받을만 하다.

어떻든 韓半島에 있어서의 強大國의 政治 干与는 暗黙裡에 作用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認識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表面上 名分上으로는 南北当事者間의 自主에 맡겨지는 것으로 解釈되기 때문에 混亂을 가져오기가 쉬우다.

그러나 實際로는 明示的으로 作用하는 西歐에서의 強国政治에 못지 않게 極東에서의 強大国 勢力의 干与가 嚴格하며 冷酷한 것임은 다름이 없다.

72年 11月 8日 仮調印된 東西獨間의 基本条約 第3条를 分析해 보면 南北韓關係에서 作用하는 強大国政治의 性格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西獨은 特히 現存하는 国境線이 現在나 未來에도 相互侵犯할 수 없는 것임을 強調하여 相對方의 領土保全을 全幅的으로 尊重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表現은 基本的으로는 70年 9月 12日에 締結된 獨, 소 不可侵条約의 規定에 根拠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 条約 第1条 後半은 『兩國은 유럽에 있어서의 狀態正常化의 增進과 모든 유럽 國家間의 平和的 關係의 發展을 爲하여 努力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努力은 이地域에 現存하는 實在의 狀態로 부터 出發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3조에서 다시 『兩國은 유럽에서의 平和는 現存하는 国境들을 아무도 侵犯하지 않는 경우에 만이 維持될 수 있다는 認識을 같이하여』 『유럽의 모든 나라의 領土保全을 現存国境에서 無制限으로 尊重할 것을 兩國은 約束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東西獨間의 基本条約이 이것을 基調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勿論이다. 美·소·中共이 南北韓關係를 現實化하려는 具體的인 努力이 公式的으로 表明된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暗黙裡에 政策意思를 表示해 왔으며 南北은 여기에 따를것을 間接的으로 強要 당하고 있다. 9)

이러한 國際政治 狀況이 南北關係에 있어서의 原則으로서 72年 2月下旬의 美·中共會談과 72年 5月下旬의 美·소·共存體制化 過程에서 秘密로 合議되거나 展開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이는 強大國間的 暗黙裡의 政策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統一될 政治秩序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美·소 中共間에서 合議보기는 거의 不可能한 狀況下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國際政治狀況 밑에서 우리들의 南北會談에서 合意된 統一이란 어떠한 內容의 것일까? 어떠한 想念에서 合意된 것일까? 이를 論理的 結論에 따라가보기로 하겠다.

우선 明白한 것은 南北이 分斷前의 狀態인 單一體制의 政治秩序로 復舊한다는 것은 斷絶되었던 歷史的 事實이 이를 拒否하게 될 것이다. 南과 北이 合쳐야 한다는 것과 「두개」가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意味하는 內容이 다르다.

南과 北은 政治的 現實的으로는 「두개」의 存在이다. 따라서

註 9) 新東亞 1973.2. 國際政治속의 南北韓關係 P. 67.

10) 前掲書 P. 68.

民族的 當爲性이란 次元에서 主張되는 念願은 <Sollen>일뿐 現實은 現實대로 <Sein>으로 嚴存하고 있다.

이렇게 理解하고 이러한 側面에서 考察할 때에는 兩者를 止揚한 새로운 形態의 基本秩序를 期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實現可能性의 統一型은 다음과 같은 段階的 發展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한다.

(가) 南北韓國聯合型 (Confederation:staatenbund: Confédération)

이는 南北韓雙方이 非國際法的인 協定이란 合意에 依拠해서 하는 南北韓의 結合이다. 이를 統一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統合」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形態의 統合的 聯合制에는 다음 段階에서의 聯邦制와는 달리 政治秩序로서의 中央政府組織이 아직 「하나」의 國家로서 成立되지 않고 當事國間의 關係는 相互協定이란 聯合에 지나지 않게 된다. 先例에도 1778年~87년까지의 美國, 1815年~48년까지의 스위스, 1820年~66년까지의 獨逸聯邦 등이 있었다. 이것은 다음의 聯邦制에의 試驗段階로서 擇했던 國家聯合의 統合型이었다.

(나) 聯邦制 統合型. (federal state: Bundesstaat: Etat fédéral)

이는 單一國家에 대한 概念으로서 聯合된 國家를 意味한다. 즉 聯邦制自体가 하나의 國家이다. 이는 勿論 前述한 「國家聯合」의 다음가는 段階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統合型이기 때문에 相互國家의 條約(이것이 韓國과 같은

分斷國家에서는 非國際法的인 相互合意란 協定)에 依한 結合이 아니라 하나의 政治秩序를 合意한 條件下에서의 基本法에 依한 國法上的 結合이란 데에서 前者와는 다르다.

北韓側이 從來부터 主張해 오던 聯邦制 國家란 어떠한 形式과 어떠한 內容의 것인가에 關한 科學的 分析과 검토는 本論文과는 別途로 「南北韓國이 成就해야 할 國家形態」로서 따로 研究할 課題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의 聯邦制에 대한 基本事項의 條件만을 몇가지 들어 두기로 한다.

聯邦制 統一形態의 國家를 樹立하기 爲한 主觀的 要件으로서 가장 主要한 것은 當事國 住民들이 統合을 願하고 있다는 事實과 그렇다고해서 當事國民들이 하나의 國家로 統一되기까지는 希望하지 않는다는 意思가 明白한 政治狀況속에서 만이 이루어지는 統合型態라는 點이다.

이러한 理論은 이미 國際法的인 見地에서 認定되어온 普遍的 原理이다.

따라서 이러한 前提下에서 우리南北韓의 現實狀況을 볼때에 果然 韓國의 南北韓同胞가 하나의 祖國으로 統一하자는 希望과 執念을 拋棄했다고 볼 수는 전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南北韓 온民族의 意思를 綜合的으로 集結 統計해 보는 方法만이 우리앞에 주어진 統一方案일수 밖에 없다. 이것이 적어도 現段階로서는 UN監視下的 「南北韓 總選」뿐이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러한 立場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對立된 見解와 相極的인 思想의 對立을 漸次로 相互間에서 理解하도록 또한 그동안의 不信感을 解消시키도록 하기 爲해서의 相互接觸과 對話로서 廣範한 「交流」의 緊要性を 火急하게 느끼게 된다. 또 現段階로서의 國民意思는 「念願으로서의」統一이란 것 뿐이며 어떠한 內容의 統一인가는 앞으로의 研究와 協商으로 이루어질 次元이 다른 「政治問題」에 속함을 누구나 意識하고 있다.

따라서 嚴格히 考察해보면 「統一」이란 概念속에는 「統合」도 있고 또한 統合의 內実만을 우선 實踐해 보려는 「交流」도 內包되었다는 多元的意義의 새로운 形態의 統一概念이란 것을 前提해두고 具體的政治現象의 過程을 더듬어 보겠다.

(다) 南北合意事項에 表現된 統一概念

合意當事者들의 意中如何는 우선 不問하기로하고 「文面上」에 表現된 統一概念의 論理는 다음과 같이 展開되었다.

7.4 共同聲明의 平和統一 原則에 立脚한 그 發展的 實踐方案으로서의 南北調節委共同委員長의 發表文中(4)에 <會議는 하루 빨리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려는 念願에서>라고한 「統一」과 合意書(1)에 <南北調節委員會는 1972年 7月 4日附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南北사이의 關係를 改善 發展시키며 各分野에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고한 「統一」과 (2).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라고하여 <가>, 合意된 祖国統一 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自主의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라고한 「平和統一」이란 것의 「統一」型은 아직도 素描조차 表現되지 못했다. 이는 未定狀態에 있다. 그도 그럴수 밖에 없을것 같다. 現段階로서는 同床異夢格이 될지라도 南北韓相互가 國際列強과의 接觸한 環境에서 불때에는 틀림없이 吳越同舟格인 共同運命의 處地에 놓여있는것이 外的作用要因으로 엄연한 事實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의 「統一」은 概念의 變質을 통한 多元的意義로서의 統一 즉 「不確定概念」으로서의 「統一」을 示唆해 준것으로 풀이 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文面上」의 「統一」이란 國法乃至 國際法上의 國家의 主權乃至 國體에 關한 問題는 「統一」이란 漠然한 概念으로서 意識적으로 「宿題」로 남겨 놓는채 이른바 「脫이테올로기」的 思考를 援用하기에 이르른 것으로 본다.

이러한 方法論만이 統一에의 捷徑이며 實現可能性의 問題이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交流」란 形態로 統一의 內實을 部分的이나마 實踐해 보자는 것 일것이다.

그러나 交流는 어디까지나 統一을 모색하는 하나의 方法에 不過하며 그것이 곧 統一일수는 없다.

그러면 「交流」란 어떠한 內容의 機能을 意味하는 것 일가? 合意書에 表現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事項이 交流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合意했다. 즉 調節委 機能으로서 (2)의 (나)에서

<南北의 政党 社会团体 및 個別的 人士들 사이의 廣範한 政治的 交流, (나) 항에서 <南北사이에서 經濟, 文化的 및 社会的 交流>를 規定했다. 다시 그를 實踐하는 機構構成에 關한 (다) 항에서 <南北 調節委員會 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委員會를 두기로 하고 이러한 各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進陟되는데 따라 設置하며 그 機能과 構成을 雙方的 合意에 依하여 따로 規定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交流가 南北韓 國民들에게 統一과의 關聯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따로 分析해 보겠다.

5. 南北交流의 意義

(1) 우리들이 一般的으로 祖国統一이라고 觀念할때의 意義는 南北 同胞 5千萬이 3千里 疆土를 우리 國家 領域으로 삼의 터전으로 하고 「하나」의 統治体制下에서 그리고 「하나」의 經濟秩序下에서 共存하는 生活圈을 이룩함을 意味한다.

즉 一民族—國家形態로 結合되는 政治制度的 統一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意味의 「統一」은 前述해 온바와 같이 國際的 政治狀況이 쉽사리 이를 許容하지 않는다. 다시말 하면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列強勢力이 우리 南北韓 國民들이 熱望을 하더라도 그것을 許容하려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強한 힘을 保有하고 있는限 그들의 利害가 相反되기 때문에 合意할 수 없고 따라서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그대로 現實化시켜서 南北關係의 安定化를

為한 交流를 通해서 統一에의 가장 基礎的인 住民의 欲求인 우리民族의 實質的인 念願充足을 許容케 할 뿐일 것이다. 10)

上述한 바와 같이 南北間의 合意는 7.4 共同聲明의 原則 즉 思想,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南은 北의 社會主義 制度를 다른 社會制度로 變更시키려 하지 않고 또한 北은 南韓에 社會主義 制度를 強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前提 밑에서 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勿論이다.

(2) 앞으로 實踐을 보게될 交流는 統一의 前段階로서의 「統合」 方法을 모색한 手段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觀念이다.

理論적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可能한 方法은 交流이고 이 交流가 向하는 方向은 統一 前段階인 統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統一의 期待可能性이 없는 現時點에서는 統一의 實質的인 內容充足을 統合의 方法으로라도 實現시켜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全域에 걸쳐서 共同生活圈의 形成과 同等한 結果를 얻어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 分斷의 制度化를 肯定하고 南北關係의 安定化를 期하면서 廣範한 交流를 通해서 形式的인 法的인 統一은 아니지만 統一의 果實만을 건우어 보자는 脫이데올로기의 方法을 意味하게 된다. 아마도 現段階로서는 祖國統一의 길은 이와같이 南北對話 → 交流 → 統合 → 統一이란 方法外에는 없는 것이다.

註10) 前掲 新東亞, P. 68

南北合意書에 依한 統一 概念과 交流의 意義는 이렇게 定立해 두고져 한다.

6. 獨逸의 東西人的 交流 分斷된 獨逸民族의 東西接觸으로써 이루어진 人的往來에 關한 交流.

제 2 차 世界大戰에서 戰敗한 獨逸은 1945年5月8日 無條件降伏을 한 후 49年9월에 西獨이 먼저 建國하고(獨逸聯邦共和國) 10월에 東獨도 建國함으로써(獨逸民主共和國) 他意에 依하여 分斷된 것은 韓國과 비슷한 쓰라린 運命을 걸어왔다.

그러나 獨逸은 民族的 悲願인 再統一의 꿈을 實現시키지 못하고 24 만에 西獨이 各各 主權國家로서 東西獨基本條約을 맺기 까지는(72.12.21일) 數많은 迂余曲折의 事緣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는 다만 東西獨이 接觸의 擴大로써 東西間의 人的往來에 關한 經緯만을 들추어 봄으로써 우리의 南北旅行에 關한 先例로서 우리에게 貴重한 暗示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로 한다.

獨逸에서는 이미 1946年10月29日의 管理理事會의 決定에 따라서 東西間의 往來가 開始된 후 東西冷戰의 結果로 人的往來에 많은 制限이 加해지게 되었다.

그후 49年5月12日 伯林封鎖의 解除로 往來가 다시 展開되었으나 52年5月26日에는 또다시 中斷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西方側의 壓力에 依해서 53年6月11日부터 다시 人的往來가 어느程度 許容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57年12月에는 東獨이 旅券法을 改正하여 東獨市民이 旅券

없이는 西獨旅行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行은 「포츠담」會談의 決定에 따라서 保障되어 왔으나 東獨側에 依하여 누차 制限되거나 禁止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61年8月12日에 伯林障壁의 構築으로 因해서 西獨 相互間의 訪問旅行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63年말 「부란트」 西伯林市長과 「아부슈」 東獨 副首 相間에 東西伯林 往來再開를 爲한 書翰이 交換되고 12月17日에 東西獨 通行証 約定이 締結되어 「크리스마스」와 「실베스타」 旅行이 許容되었다. 그 뒤에도 通行証協定이 締結되어 名節에 親戚 訪問을 爲한 旅行이 許容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66년에는 東獨이 國家承認을 要求하여 東西伯林의 訪問 旅行은 3年만에 다시 中斷하지 않을 수 없었다.

共産側 東獨은 더욱 68年부터 짓궂게도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行에도 여러가지 干涉을 하기 시작했고 68年6月12日에는 東獨 通過에 通行稅와 査証制度를 新設하여 이를 制限하기 까지 했고 69年1月1日 부터는 東獨 通過에 徹底한 「비자」義務를 賦課하 게끔 되었다.

그러던 것을 「부란트」政權의 樹立후에 이러한 條項들의 緩和에 努力하여 西伯林에의 旅行의 自由가 保障되고 四大國의 伯林協定에 依해서 通過를 保障받게 되었다.

즉 이러한 伯林通行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西獨의 努力이 71年 9月3日의 四大國協定에 依해서 通行의 自由를 保障받게 된 것이다.

그후의 西独과 西伯林間의 通行에 關한 兩國協定은 71年12月17日에 署名되어 72年6月2日부터 効力을 發生하였다.

그러면 東西雙方 住民들이 相對方側으로 旅行하게 된 記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東独人의 西独旅行

東西独間의 旅行은 1964年9月10日 부터 약간씩 可能하게 되었는데 東独의 年金受領者들의 西独訪問을 許容하게 되었다.

65年 이래 그數는 年間に 약 1백만명에 달했다. 東独年金受領者들의 西独旅行은 1년에 1回 4주이내로 東独側이 許容하고 있다. 年金受領者는 女子는 만60歲이상자 이며 男子는 65歲이상자이다. 東独의 年金受領者들의 西独旅行者數는 다음과 같은 統計를 나타내는 있다.

1964 (11月 ~ 12月)	664,435
65	1,218,825
66	1,055,498
67	1,072,496
68	1,047,359
69	1,042,191
70	1,048,070
71	1,045,385

또 東独은 伯林 4大國 協定의 効力과 함께 緊急을 요하는 家族問題가 發生했을 때에는 아무런 年齡의 制限없이 西独旅行을

許可할 것을 約束한바 있다.

또한 東獨은 家族의 結合을 爲해서 東獨人의 西獨旅行을 許可하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東獨人의 西獨旅行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西獨人의 東獨旅行

東獨은 西獨人에게 1等親과 2等親의 親戚을 訪問하는 경우에 限하여 1년에 1回 4주이내의 滯留를 許可하고 있다. 이 외에도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博覽會에의 參加는 許容되고 있다.

또한 東獨의 招請에 依하여 東獨을 旅行할 수도 있다.

西獨人이 東獨을 旅行하려고 하면 1968年6月11日의 東獨 旅券法의 規定에 따라 西獨의 旅券을 가지고 東獨人國 査証을 받아야 한다. 또한 出國時에는 出國査証을 받아야 한다.

入國査証을 받기 爲해서는 東獨에 居住하는 親戚이나 東獨當局의 招請人이 申請하여 보낸 入國許可証을 가지고 가면 國境에서 査証을 받을 수 있다. 出國은 人民警察에서 해주고 있다.

入國査証의 費用은 15 DM이고 出國査証의 費用은 5 DM이나 出國査証의 費用은 받지 않는것이 慣例이다.

西獨에서 東獨旅行을 한 사람의 數는 다음과 같다.

1968年	1,261,441
69	1,107,077
70	1,254,084
71	1,267,355

또한 71年 12月 11日에는 西獨當局과 東獨이 6年만에 처음으로 西伯林市民이 東獨과 東伯林을 訪問하도록 許容하는 協定에 署名하여 72年 6月 4日부터 發効했다.

뿐만 아니라 東西獨間에서 靑少年의 交流를 實施하고 있는데 漸次的으로 活潑하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 傾向에 있다.

그들은 靑少年大會를 주로 東獨에서 行하고 있는데 그大會의 會合에는 大体로 西獨靑年의 3倍의 東獨靑年이 參加하게 된다. 靑少年大會에 參加하기 爲해서 東獨에 旅行하는 靑少年 數는 年間에 3만명에서 5萬명에 이르고 있다.

東西獨은 이미 暫定國家가 아니고 完全國家로서 國家聯合이나 聯邦이 아니라 事實上 두개의 獨立國家로 活動하지 않을수 없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의 再統一의 展望은 國際情勢에 依하여 決定될 수 밖에 없는 外的要因이 질곡으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 韓半島 보다는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西獨下院의 副議長이었던 「카를로 슈미트」 教授가 予言한바와 같이 韓國의 統一後 오랜 歲月이 지나야 獨逸의 統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까닭은 韓國의 統一을 反對할 나라들은 많지 않으나 獨逸의 統一을 反對할 나라는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前提下에 놓여있기 때문에 兩獨政府는 統一은 聖스러운 悲願이기는 하나 緊急한 課題가 아니라는 것으로 봄으로써 兩獨이 Status quo 를 維持하면서 交化的 經濟的 社會的인 交流를 보다 活潑히 展開함으로써 分斷의 悲劇과 苦痛을 實質的 分野에서 解消하는데 努力을 기우리고 있는것으로 볼수 있겠다. 따라서 東西兩獨은 獨逸基本條約의 締結與否에 不拘하고 서로가 國際法上的 主体로서 活動할 公算이 크게되었고 兩獨이 UN에 同時加入하는 것은 멀지 않을것으로 觀測되는바 兩獨關係는 現狀固定化로 一段落될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1)

註 11) 三星文化文庫 20. 分斷國의 問題 P. 173-179 參照

三. 觀光旅行의 實現方案

1. 觀光의 概念

南北調節委 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의 調節委 機能으로서 (라) 항에 <南北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社會的 交流>라고 하였다. 그 交流內容中의 하나로서 「南北韓 觀光旅行의 實現 및 發展方案」의 理論的 側面과 앞으로의 調節委員會談에서 提案하게 될 提案內容 및 協商을 爲한 戰略的 側面 등을 검토 分析해 보기로 한다.

(가) 觀光의 意義

一般的인 概念에 따라 觀光을 狹義로 解釋하면 다른 地方이나 다른 나라의 ①風光이나 ②風俗 따위를 視察하는 旅行을 意味한다. 그러나 廣義로는 그외에도 다른 나라의 ③文物制度를 視察—見學하는 것까지를 包含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觀光에는 名勝地와 歷史的 또는 藝術的 遺跡地를 探勝하러 다니는 旅行이며 따라서 交通, 宿泊, 娛樂등의 設備와 施設問題가 隨伴됨은 普遍的인 概念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南北關係의 安定化를 爲한 交流로서의 南北韓 相互觀光旅行을 提案하게 되는 意圖는 直接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皮膚로 느낌으로써 視聽覺을 통한 科學的認識을 통해서 百聞은 不如一見式으로 올바르게 意識함으로써 그중안의 南北 相互間에서의 虛偽, 歪曲 宣傳등으로 因한 認識錯誤를 是正키 爲함에 있다. 또한 이것은 <對話있는 對決>이라는 側面에서 보면 <知

彼知我는 勝戰의 要諦>로도 된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이 서로 相對方에게 <보이기 爲한 觀光>을 實現한다는 것은 自己側 制度나 施設의 文物을 觀察 見學시킴으로써 間接的으로는 自體內에서의 向上 發展과 優越을 자랑하기 爲해서 더욱 積極的 努力을 傾注하게 된다는 競爭的인 効果도 얻을 수 있다는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意味로 볼때에 이것을 政治的 弘報觀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南北韓은 對話를 爲한 相互往來時에 實踐하고 있는 事項에 속하고 있다. 또 外國人이 보고온 北韓의 「金日成神格化運動」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北韓의 宣傳效果를 觀光으로 얻은 셈이 된다. 즉 『지금 北韓에서는 人民學校, 中學校 혹은 學生少年官殿, 少年團 野營所등 그 어디를 가 보더라도 맨 처음 案内되는 곳은 正面에 金日成의 胸像을 걸어놓은 이른바 「金日成首相의 革命活動 研究室」이라는 政治思想學習場이라는 것이다』(註1)

(나) 觀光의 史的 由來(註2) 및 現代的 機能

人類는 歲月의 變遷과 더불어 一定한 居住地를 떠나서 空間的 移動過程을 밟기 시작했다. 이는 一般的으로 「旅行」이라는 觀念下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近世에 이르러 더욱 旅行의 機會가 增大되고 그 範圍가 擴大되어 왔다. 특히 交通手段의 發達은 旅

註1. 世界, 1972.12, P.114 (宮田法人, 平壤再訪 - 1972년 秋)

2. 主婦生活 別冊附錄, 1969.5, P.12. (徐明錫)

行을 더욱 促進케 했다. 따라서 最初에는 旅行動機가 衣食住란 基本的 欲求充足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漸次로 文明이 發達하여감에 따라서 嗜好적 愉樂 欲求充足으로 發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現代的 意味로서의 觀光이라 함은 旅行을 隨伴하는 嗜好的 愉樂의 欲求充足行爲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觀念은 西歐의 概念에서 본것인데 觀光을 場所的 移動現象에서 把握하여 交通手段과의 相關關係에서 理解되어 왔다. 이것이 1811년에 最初로 투어 (Tour) 또는 투어리즘 (Tourism)이라는 用語로 英國의 스포츠雜誌에서 使用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註3)

한편 觀光의 東洋的 概念은 이와는 多少의 差異點을 보이고 있다.

즉 「觀光」이란 用語의 始源은 中國周易의 「觀察」이라는 問題에서 論하여 「觀國之光 利用資于王」이라는 觀卦의 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當時의 統治階級이 다른 나라의 文物制度와 治國大道의 큰 計略을 보기 爲해서 여러 나라를 巡行하여 그의 土地 風俗 副業 文物등을 觀察하고 한편 諸國의 王은 이 漫遊巡行하는 大賢良才 諸子百家를 迎賓歡待하는 當時의 情景을 設破한 句節에서 었다.

따라서 「觀光」이란 用語는 「觀國之光」이라는 네 글자中에서 「觀光」이라고 略述하게 된것이다. 이와같이 用語의 始源을 따라

註3. 前掲書, 主婦生活, P.13.

把握할때 觀光이란 元來 東洋에서는 外來客에게 訪問國側이 「나라의 빛」을 「보여」주는 것으로 一種의 儀典的 概念에서 把握했던 것이다.

더욱 觀光의 主体가 되는 「觀光客」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意味하는가. 그 定義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1947년에 開催된 國際觀光機構인 (I.U.O.T.O) 그 總會에서 採擇된 內容은 다음과 같은것이 觀光客이라고 定義했다.

- ① 遊興, 家庭事情 또는 健康上의 理由로 海外旅行을 하는者
- ② 會議 또는 會合, 科學, 行政, 宗教, 外交, 運動 등에 參席할 目的으로 一國의 代表 또는 隨行員의 資格으로 國外에 旅行하는 者
- ③ 事業 또는 事務連絡次 國外에 旅行하는者
- ④ 24時間以內의 滞在者 일지라도 海港으로 上陸하는者
- ⑤ 一國에 常駐하는 外交官 및 軍人들의 休暇 및 健康上 理由로서 國內에 旅行하는者 등으로 規定하였다.

그런데 從來에 觀光이라고 하면 一般的 認識으로는 有閑階級の 特殊한 生活現象으로서만 看做되는 것이 普遍的인 생각이었다. 이러한 觀念은 非但 우리 나라에서만 局限된것이 아니라 低開發國家에서는 거의 共通된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觀光에 對한 認識은 漸次로 發展하는 世界的 思潮에 따라서 變化해 가는 傾向에 있음은 事實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觀光의 觀念은 單純한 享樂爲主의 人間의 移動

現象이 아니라 보다 높은 次元에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諸般 効用性を 보여 주고 있다.

즉 個人所得의 增大로 因한 産業視察이라든지, 餘暇의 善用으로 文化的 見學施設이라든지, 社會福祉 政策에 立脚한 國家의 觀光振興 策의 強力한 推進具現 등 一聯의 觀光與件의 造成으로 말미암아 一般의 勤勞大衆도 觀光을 하나의 生活必需的 手段으로 看做하게끔 認識의 發展을 보게 되었다. 더우기 現代의 交通手段의 急激한 發展은 더욱 이를 促進 加速化시켰고 이른바 觀光의 普遍化現象이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우리 南韓의 自由社會에서는 하나의 季節的 國民行事로서 一般住民들의 生活向上과 더불어 나날이 觀光무음을 일으키고 있는 現象이다.

이와같이 現代人の 生活에 있어서는 觀光이 하나의 生活必需品視 하기에 이르렀다. 日本東大의 鈴木教授의 말대로 『技術革新에 基礎해서 生活革新으로서의 觀光은 衣食住 다음의 第4의 生活必需品 이다』라고 強調하듯이 (註4) 現代人에게는 漸次로 觀光이 生活必需品의 手段으로 되고 있다.

都市人에게는 交通의 폭주, 人口의 密集狀態, 産業公害에 依한 都市環境의 惡化 등으로 말미암아 市民으로 하여금 郊외지구의 新鮮한 空氣 休養處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 한편 農漁村에서는 産業

註4. 前掲書, P.14, 現代人の 生活과 觀光의 必要性

革命 이후 機械文明이 發達하고 都市가 急激히 發達함에 따라 農漁村 住民들은 人文教養을 높이고자 都市民과 反對로 都市訪問의 觀光旅行의 傾向이 增大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生活環境의 變化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人間답게 살아 보려는 뜻에서 觀光旅行이 所望되고 있음이 現實이라고 볼때에 觀光의 普遍化傾向은 必然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普遍化傾向이 우리 南韓에서 볼 수 있는 主要原因은 다음과 같다.

① 勤勞者의 勞動管理의 合理化 進行에 따른 時間的 餘暇의 增大現象이다.

人間은 機械와 달라서 生産勞動의 能力에 限界가 있다. 어제의 피로를 풀고 來日의 보다 높은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서 勤勞者에게 適正한 勞動時間의 適用과 一定한 「레크리에이션」의 活動機會를 주는 것이 勞動의 合理的 管理이다.

이러한 經營原理에 立脚한 國家의 勞動政策의 結果는 餘暇의 增大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一般勤勞者는 보다 많은 休暇를, 보다 有效하게 活用함으로써 心身의 피로를 除去해 보려는 傾向이 普遍化하여 가고 있다.

② 國民所得의 增大이다.

人間生活의 基本的 條件은 衣食住라 할지라도 그 衣食住는 人間生活을 營爲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基本條件은 될지라도 充分한 條件은 決코 아니다. 따라서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이 되기 爲해

서는 衣食住問題의 先決과 同時에 精神的 快樂 追求라 할 수 있다. 特히 先進의 福祉社會에서는 그 얼마나 人間生活의 恩倖을 生活의 各分野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 現象은 後進國 國民들이 一般的으로 羨望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것이 現實이다. 이것은 두말 할것 없이 生産的인 享樂이다.

그러나 前近代의 時代의 遺物인 非生産的 頹廢的 虛無主義的인 享樂至上의 風潮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特히 社會情勢의 激變에서 安定을 찾지 못한 混亂期에는 이러한 社會風潮가 盛行하게 되는것도 自由社會인 南韓에서 흔히 볼 수도 있다. <노세 노세 싫어 노세 늑어지면 못노나니>式의 風潮이다.

그러나 觀光의 基本理念이 이와는 전혀 次元이 다른 淸淨한 必要조차 없다. 따라서 南北韓觀光旅行이란 觀念은 또 한층 次元이 높다는 것을 미리 認識해야 할 것이다.

南韓의 自由社會와는 너무나 相異한 統制下에 있는 北韓과의 交流로서 觀光旅行의 實施를 提議하더라도 그들의 思考方式으로서는 선뜻 同意하지 않을것 같다. 美國 하바드大學校 法科大學 「제롬·알렌·코헨」教授의 北韓訪問記(72년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中에서 몇군데 引用해 보면(註5) 「別荘에 갇힌 풀이 되어」中에서 『우리는 自由롭게 바깥을 散策하는 것도 許容되지 않았으며 觀光도 빠르게 모든 車窓을 통해 走馬看山式의 것밖에 보지 못했

註5 . 1973.3.北韓, P.116.

다. 그리고 언제나 警護員이 우리를 따라 다녔다. 더구나 그들은 치밀한 事前措置를 취해놓고 우리가 北韓사람들과 接觸할 수 있는 機會를 極少化했고 여러가지 機關을 가보고싶다거나 市民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寫眞을 찍겠다거나 或은 食堂에 들어가 보고 싶다거나 하는 請을 하면 案内員들은 번번히 「노」라고 대답했다.』

「主体思想에 神經過敏이 된 北韓官吏들」 中에서 『내가 北韓에 머무는 동안 가장 強力한 印象을 받은 것은 民族主体性和 自主性を 強調하는 北韓官吏들의 態度다. 或時 누가 北韓政府는 소련이나 中共에 依해 影響을 받고 있다라는 主張이라도 할라치면 北韓官吏들은 그에 대해 神經過敏的 反應을 보였다.

그들은 앞으로 韓國은 다시는 어떤 나라의 「종놈」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열변한다. 우리가 어찌다가 平壤은 결국 어느面에서 北京이나 모스크바를 본따르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 우리의 案内員은 그 이상이 없을만큼 핑장한 화를 냈다. 北韓에서는 北韓 共產主義運動의 歷史를 서술함에 있어서 과거 소련이나 中共이 北韓에 미친 影響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展開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重大한 意味를 갖는 事實이었다.』 『北韓人들은 工業國家를 建設하는 作業을 繼續키로 決心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들은 특히 이같은 工業國家建設이란 目的을 達成키 爲해 그 手段이 될 技術教育에 매우 큰 比重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經濟發展만이 國家의 獨立을 保障해 준다고 깨달은것 같았다. 그리고 金日成體制는 住民의 支持를 強化하기 爲해 肥料工場이나 武器 庫

은 버스外에 TV 受像機나 세탁機械나 冷蔵庫等 消耗品을 生産하기
爲해 努力하고 있었다.』고 紹介했다.

그들의 思考方式에는 아직도 觀光概念 把握에 있어서 非生産的
非社會主義的 行動으로 보고 있거나 앓을지 자못 의아스럽다.

그러나 그들社會에서는 勤勞者가 休息하는것 까지를 權利라고 規
定하고 있다.

우리 自由世界에 있어서는 當然한 人間의 基本的 自由임으로 구
태어 憲法에다 規定할 性質의 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소련을 비
롯한 共產世界에서는 이렇게 休息權을 憲法에 規定하고 있는것은
그러한 社會는 休息할 自由조차 없다는 前提下에서 즉 勤勞者는
強制的 勞動義務가 當然하다는 政治秩序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제 57 조)에 依하면 『公民은 休息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8時間 勞動制, 有給休暇制 國家費用에
依한 靜休養制, 繼續 늘어나는 여러가지 文化施設 등에 依하여 保
護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觀光提議는 그들의 憲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또는 社會主義的 行動準則을 徹底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憲法
제 67 조에 違背됨이 아니라는 理論的 合理性을 說得해야 할 것이
다.

自由世界에서는 오늘날 國民經濟의 向上에 따라 個人所得이 增大
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따라서 增大된 個人所得中에서 衣食住의
根本生活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도록 最小限의 消費와 貯蓄으로써

國力培養의 源泉의 寄與는 勿論이거니와 남은 몫은 所謂 文化生活에 寄與하는 「雜費」部門에 消費하게 된다. 觀光旅行이란 바로 個人 假處分 所得中에서 이러한 「雜費」몫과 函數關係에 있기 때문에 雜費몫의 增大는 곧 觀光의 機會가 增大된다는 結論이 된다.

最近 우리 나라에도 一種의 「바캉스무움」이 일어났고 이러한 原因의 하나는 經濟的 面에서 漸增하는 市民所得 中에서 漸次로 「엔겔」 計數가 相對的으로 낮아지고 雜費몫이 늘어나서 觀光旅行의 能力이 經濟的으로 強化되고 있음을 雄辯으로 証明하고 있는 셈이 된다.

(3) 메스컴의 發達에 起因된다.

메스컴은 끊임없이 未知의 世界를 우리들 가슴에 童話처럼 아름답게 浮刻시켜준다. 世界到處의 秀麗한 自然風景을 <본도가네>式으로 奇談 奇景등을 紹介해 주며 이것들의 이미지는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 먼 낯선 땅에 동경을 심어준다. 바로 이러한 心理的 衝動을 메스컴은 誘發시키고 있다.

(4) 敎養의 向上을 爲한 慾望에서이다.

敎育水準이 높아지고 一般的으로 敎養이 높아짐에 따라서 旅行의 結果 얻어지는 見聞을 自身の 資産으로 蓄積하려는 慾望에서이다. 「우물 안 개구리」式의 偏狹한 自身の 處地에서 旅行의 形式을 빌어 百聞은 不如一見이란 見聞을 넓혀 敎養에 플러스 되도록 한다.

(5) 交通手段의 急激한 發達이다.

觀光을 空間的인 處所의 移動現象으로 把握할때에 바로 「移動」 그 自体를 可能케 하고 그를 担当할 機關이 交通手段이다. 最近의 交通手段으로서 航空機의 急激한 發達은 바야흐로 SST 時代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國內에 있어서도 全國을 1일 生活圈으로 縮少시킨 高速道路의 建設과 高速버스의 登場으로 觀光旅行 무우드를 造成시켰고 旅行의 容易 便利 快樂의 可能性을 增大시키게 되었다. 또한 漸次로 擴大되어 가는 韓國의 發展은 <마이카아> 時代에 들어왔기 때문에 <허니 무운투어> 등이 盛行하게 될것임은 自然의 추세이다.

(가) 觀光의 機能擴大傾向

以上에서 論述한바와 같이 現代의 觀光은 多樣的 要因에 따라서 盛行하게 되었고 最近의 傾向으로는 從來의 觀光概念이 더욱 擴大되어가고 있다.

從來에는 觀光의 概念을 다만 見物 遊山的인 「사이트시잉」 (Sight seeing)에 意義를 두고 自然探勝등에만 置重해 왔었다. 그러나 世界가 國際社會로 組織되어 가고 社會構造가 多樣化됨에 따라서 國際的 結社組織도 多樣化되고 從來의 見物遊山的인 受動的 非生産的 觀光은 止揚되고 國際學術大會, 競技大會, 國際的 各種 博覽會 등의 開催 및 參加등의 旅行形態로 변모되어 多目的 旅行 效果를 가지려는 傾向이 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從來의 受動的 觀光에서 現今에는 過剩된 <스테미너>의 解決을 爲해서 스포오틱한 形態의 觀光 즉 能動的 觀光이 盛行되어 가고

있다. 예를 보면 스키대회,登山,골프,사냥 등 스포오틱한 觀光形態에로 能動的 積極的 觀光에로 그의 質이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觀光의 効果

觀光을 產業的 側面에서 考察해 보면 이는 하나의 經濟行爲이며 또한 그의 事業은 所得行爲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觀光事業이 가져다 주는 意義를 效果面에서 볼때에는 文化的 効果와 經濟的 效果로 兩分해서 볼 수 있다.

(1) 文化的 効果

國際的 平和와 國民生活의 安定 向上에 寄與하는 國民의 健康한 文化生活의 享受라는 社會福祉의 意味를 갖는다. 旅行의 自由는 實로 自由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基本的 權利이다.

韓國의 維新憲法 제 30 조제 1 항에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제 12 조에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北韓側 社會主義憲法에 依하면 그 어느 句節에도 移轉이나 往來의 自由가 規定된바 없다. 그것은 北韓의 現實 制度下에서도 國內에 있어서 까지도 相互 往來의 自由가 없다. (註 6) 거기서는 通行証과 旅行證明書を 所持해야만 된다. (註 7)

註 6 . 72년 6월, 統一院研修講義에서 北韓實情.

7 . 72년 5월, 統一研修所刊, 民主統一論, P. 142-143.

이러한 現實의 北韓實情을 把握하지 않고서 本主題인 南北韓 觀光旅行을 論함은 机士空論에 不過하기 때문에 그러한 過誤를 犯하지 않기 爲해서 現實狀況의 科學的 分析을 하려는 것이다.

이에 關해서는 다음 章에서 評論키로 한다.

(2) 經濟的 效果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에서는 觀光事業을 政策的 次元에서 振興 育成시키고 있다. 그 理由는 國際收支의 逆調를 克服하기 爲해서 國家의 總力을 傾注하게 된다.

특히 우리 韓國과 같이 100億弗 輸出目標 達成을 위한 一大 躍進의 經濟政策面을 감안 할때 輸出産業 育成을 爲한 産業資金 需要의 增大에서 오는 外資確保問題와 맞서 輸入이 輸出을 超過한 데에서 惹起되는 國際收支 赤字들을 最少限度로 貿易의 收入으로 커버 하는것이 觀光收入이다.

一般的으로 經濟的 後進國은 輸出産業 基盤의 취약성으로 商品輸出에서 獲得한 外貨는 原資材의 輸入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實際로 外貨 可得額은 6%内外에 不過하나 觀光輸入은 90%의 外貨可得率이 있기 때문에 國際收支效果가 다른 産業에 比하여 크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國際觀光의 側面을 다시 分析해 보면 外來觀光客의 消費行爲는 어느 特定地域內에서 비롯되는 순간에서 부터 貨幣의 流通現象이 그 地域內에 作用하는 것으로서 이 데에 두가지 類型의 經濟構造에서 相異한 乘數效果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

즉 先進國 乃至 中進國에서는 5.8 配率로 되고 後進國에서는 3.2 配率의 乘數效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觀光事業은 곧 多様な 關聯事業體를 必然的으로 發展시키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關聯事業體는 各種의 項目으로 國家에 納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國家는 觀光事業體로 부터 새로운 稅源을 確保하는 效果를 갖게 된다.

즉 觀光事業體가 모든 項目으로 國家에 納稅하는 總和는 全體 觀光收入中 10%에 該當한다는 事實을 체키 (Checchi) 報告書에서 밝혔다.

또한 一般的으로 거개의 産業에 있어서 그 産業의 發展과 더불어 雇傭效果를 보인다는 것은 必然的 事實이었으나 특히 觀光事業의 發展에 있어서 雇傭效果는 이 事業自體가 <서비스>를 販賣하는 內容이므로 그 效果는 보다 크다는 事實이 立證되었다. 그것은 前述한 「체키」報告書에서 밝힌 雇傭效果는 全體 觀光收入中 54%가 人件費로 支出되고 있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觀光事業은 國民經濟 및 國家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다른 産業에 比해서 크다는 것이 各種의 研究調查의 報告書에서 論證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關係의 改善을 위한 南北交流로서의 觀光旅行을 實現시키려는 모색은 以上에서 論述해온 效果的 意義 以外에 祖國統一의 平和的 實踐이란 보다 次元이 높은 政治的 觀點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實現成就 如何가 南北의 關係改善의 架橋的

役割을 左右하게 될 것이다.

2. 南北韓間 觀光旅行의 機能的 分類

이는 豫測 가능한 南北韓 相互往來를 意味하게 된다.

우선 外形上으로 觀光旅行을 하는 觀光客을 本래에 이는 하나의 「나그네」에 不適當하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旅行目的 乃至 意中 또는 動靜 行勢如何에 따라서 多樣的 觀光機能을 分類할 수 있다. 예를들면 八道江山을 周遊觀覽하는 漫遊探勝客도 있고 옛날 古山子 金正浩가 大東輿地圖를 만들기 爲해서 八道江山을 探訪했다든지(註8) 伊太利의 航海者 「콜롬부스」(Columbus, 1456-1506)가 「마르코.폴로」의 「東方見聞錄」(註9)을 읽고 東洋을 憧憬하여 地理學者 「토스카벨리」(1397-1482)의 <地球는 둥글다>는 學說을 믿고 西쪽으로 航海함으로써 印度로 가는 지름길을 發見하려고 1492년에 스페인의 「이스벨라」 女王의 도움을 얻어 팔로스港을 出發 70日만에 西印度諸島의 「산살 바도르」섬에 이르렀을 때(제4航海 1502년에서 4년까지) 처음으로 「아메리카」大陸의 「혼두라스·파나마」를 發見한 것이라든지, 或은 朝鮮조 末葉의 蓬자

註8. 李朝 23代 純祖 晩年 30年동안 全國을 踏査하여 만든것.

註9. 伊太利의 旅行家로서 1271年 蒙古의 「쿠빌라이」朝廷에 旅行하는 아버지를 따라 陸路로 고비沙漠을 횡단 1275年에 開平에 도착하여 그 一行은 蒙古政府에 重用되었고 1292年에 쿠빌라이의 許可를 얻어 다시 「스마트라」, 印度, 페루시아를 거쳐 1295年에 베네치아에 歸着 그가 獄中에서 기록한 것이다.

詩人으로 金笠(金炳淵, 1807-1863)이 洪景來亂때 宜川府使로 있던 祖父가 景來에게 降伏하여 家門이 亡하자 삿갓을 쓰고 放浪生活을 하며 社會와 人生을 풍자하는 많은 詩를 남겼다는 등 헤아릴 수 없이 例를 볼 수 있다.

그러나 觀光의 機能을 分類하는 意圖는 南北關係 改善을 爲한 交流로서 提案함으로써 相互間의 不信과 誤解된 點을 풀고 次元이 높은 統一에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實現可能性의 觀光旅行을 豫測하고 分析 검토함에 目的이 있다.

(가) 隨伴招待觀光의 擴大

우리들 南北 雙方은 이미 赤十字會談의 本會談時와 調節委員會 또는 共同委員長 會談時에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實施하였던 招待觀光이 이에 屬한다. 비록 限定된 範圍內에서 일지라도 雙方이 未知의 世界같은 南北韓 祖國강토를 直接 가고 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相互理解와 不信感 解消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 오랜歲月 帳幕속에 秘藏되었던 南北韓의 모습을 部分的이나마 公開的으로 視察할 수 있었다는 것은 南北 相互間의 飛躍的 接觸의 發展이었다.

보고싶었던 相對方의 赤裸한 모습을 視察하고 어떻게 느꼈는가는 고사하고 相對方을 理解하는데에 偏見이나 그릇된 先入感을 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招待觀光을 더욱 擴大시키고 빈번하게 增大시켜 가자는 것이 이 隨伴招待觀光旅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窮極的으로는 自由往來할 수 있는 統一祖國의

成就에 대한 民族的 希望을 갖도록 하자는 念願에서 큰 意義를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政治的 現實은 이러한 民族的 念願에 대하여 선뜻 「그렇게 하자」고 對答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民族的 고민이 있고 쉽사리 풀리지 못할 宿題꺼리가 山積해 있다.

北韓의 事情을 더 좀 깊이 觀察하고 認識을 올바르게 하기 爲해서 그 樣相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外觀上으로는 보이지 않는 北韓의 政治秩序를 미리 認識하고 觀光旅行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다음과 같은 分析을 해보겠다.

北韓人民들은 集團主義 體制에 묶여 있기 때문에 職業의 選擇, 子女教育, 居住地移轉의 自由가 없고 따라서 個人의 自由는 各種의 組織에 依해서 統制되고 있다.

말하자면 人民들의 基本權의 거의 全部가 認定되지 아니한 社會이다. 所謂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에 人民의 基本權을 形式的으로 規定하였지만 (前述한 바와같이 居住移轉의 自由는 憲法上에 그 자취조차 없다) 그들이 말하는 「人民」이란 觀念은 階級的이고 排他的인 意味 內容을 지닌 것이다. 즉 黨의 命運에 忠實한 共產主義者라 할지라도 일단 黨의 領導的 地位로부터 追出될 때엔 人民의 敵으로 낙인을 찍히게 된다.

하물며 政治的으로 無力한 大衆의 基本權이야 말 할것도 없다. 이와같이 北韓社會는 不平等한 分配로 이루어진 階級社會이다.

<各自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하는> 共產主義의 分配方式이 適用되고 있지 아니하며 衣食住를 비롯한 生活의 모든 面에서 隔差가 顯著한 階級社會인 것이다. 그들의 新憲法인 제7조에 依하면 『主權은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 인텔리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北韓의 階級社會도 「푸블레타리아」와 農民들의 優位가 認定되는 社會가 아니라 勞動黨 其他 政治權力 機關에 從事하는 支配階級만이 호화로운 生活을 하는 말하자면 少數의 共產指導層을 爲한 階級社會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共產世界와의 「平和共存」을 目標로 相互關係의 安定化를 爲한 交流에 있어서 制限된 範圍일지라도 觀光旅行을 더욱 活潑하게 擴大해서 實施하게 된다면 相互間의 理解增進과 文化 交流를 促進케 함에 있어서 相互往來가 무엇보다도 急先務의 親交 方法이 되겠다.

이러한 旅行을 통해서 雙方間의 理解가 促進深化되면 結果的으로 平和的 關係改善에 寄與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側이 가장 미워하고 敵對視하는 美國의 著名한 言論人을 招請한바 있다. 『北韓은 閉鎖된 巨大한 兵營이다』라고 直評했던 「뉴욕 . 타임즈」紙 編輯副局長 「해리슨 . 솔즈버리」의 「北韓訪問記」(註10)에 依하면 西方 記者들을 招請한 것은 北韓의 政策變化의 一環이라고 했다.

註 10 . 北韓, 73.2 P.69. (平壤으로 부터의 報告)

즉 『北韓이 나의 入國을 許容한 것은 나를 그들의 宣傳道具로 利用하려는 것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北韓에서 내가 目擊한 여러가지 經驗으로 보아 나의 入國이 許容되었다는 것은 北韓의 어떤 政策變化의 一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變化의 가장 重要한 局面은 北韓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外界에 대해 關係를 樹立하려고 한다는 點이다. 그리고 나는 南北韓의 赤十字會談을 通해 進行하고 있는 接觸을 잘 알고 있다. 勿論 나는 내가 北韓을 訪問한 때를 前後하여 있었던 南北韓 高位層들의 極秘會談에 對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最近 北韓의 政治人들과 만나본 사람이라면 北韓이 分明히 開放政策으로의 變化와 外界와의 關係樹立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經驗에 비추어 보자면 이제까지 閉鎖되었던 共產黨國家들이 처음으로 外國記者를 招請한 것은 大体로 그 나라의 全體的인 어떤 政策變化의 一環이었던 것 같다.

즉 그들의 政策變化의 「시그널」을 삼는 셈인데 그들이 外國記者들에게 入國을 許用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 보아라. 우리가 變化하고 있는것을, 우리는 어떤 去來를 할 覺悟가 있다>라는 態度를 나타내는 것이다. 北韓이 「뉴욕. 타임즈」記者인 나에게 入國을 許容한 것은 아마 그같은 뜻이 있을게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北韓側의 對外 開放政策變化를 立証하고 있는 또 하나의

証拠를 보기로 한다. (註11)

(1)北韓의 外交戰略의 樣相

北韓은 71년 11월 15일 「勞動黨제 5기 3차全員會議」에서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이라는 內容을 決定한바 있다.

① 韓國의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② 對日關係는 國交正常化를 이룩함으로써 諸 韓日條約이 自動廢棄되게 하며

③ 對美關係에 있어서는 우선 平和協定을 締結하기 爲해 暫定的으로 過去의 態度를 若干 柔軟化 시키기로 政策轉換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轉換의 背景은 美·中共의 接近에 따른 世界情勢의 緊張緩和 분위기를 有利하게 利用하여 平和攻勢를 展開함으로써 對 UN問題에 있어서 有利한 立場을 確保하고 對內的 體制를 強化하며 「六個年 經濟計劃」을 遂行함에 있어 必須不可缺한 交易增大를 成就코자 한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具體的 現象으로서 72년 2월 10일을 期하여 大的인 訪問外交를 시작했었다. 그것은 相·副相이란 巨物級 人物들을 團長으로 하는 6個 代表團과 此外로 2個의 使節團을 世界 各地域에

註 11. 北韓, 72.12, p.244 (北韓레이다, 北韓 訪問外交多元集約化)

에 派遣했던 것이다.

또한 72년도에 들어와서 北韓의 이와 關聯된 對外活動中 몇가지 重要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월 18일 北韓은 「부른지」와 經濟 및 技術協助에 關한 合意書를 平壤에서 調印했고 1월 25일에 文化部相인 장철을 團長으로 하는 平壤<피바다>歌劇團 一行을 「알제리」의 公報 및 文化省 招請에 依해 「알제리」를 訪問케 했고 또 北韓의 萬壽台藝術團 150여명이 團長 김경환의 引率下에 푸랑스를 訪問하고 「빠리」에서 2월 17일부터 18일간 公演을 가진바 있다. 또 핀란드 首都 「헬싱키」에서 寫眞 및 工藝品展示會를 開催하고 金日成의 革命活動에 대한 寫眞 및 著作選集 工藝物 등을 展示하였고, 덴마크의 首都 「코펜하겐」에 民間資格의 貿易公報 事務所를 開設하려고 한다.

以上과 같이 北韓側의 갑작스러운 對外接觸은 그들의 政策變化를 具體적으로 보인것인데 이에 隨伴하는 彼此 相互間의 「보이기 위한」 招待觀光이 隨伴됨을 理解할 수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開放政策의 變化는 앞으로 우리와의 南北交流로서 外交的 公務에 隨伴되는 招待觀光을 幅넓게 그러나 操心스럽게 合意할 可能性이 많게 되었다.

勿論 이러한 意味로서의 觀光이 傳統的인 本來의 觀光 카테고리에서 止揚된 것임은 前述한바와 같이 「觀國之光」의 意味에서 南北韓이 그동안 서로 달라진 文物制度, 서로 相異한 思想, 理念, 體

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따라서 어떠한 治國의 大道를 꾸미고 있는가를 雙方이 다같이 보고싶다는 欲求를 雙方 同等한 互惠的 立場에서 實現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前述한 觀光主体로서의 「觀光客」의 定義를 「 I. U. O. T. O 」 (International Union of Official Travel Organization) 즉 1946년에 創立된 UN의 諮問機關으로서 「官設觀光機關 國際同盟」(註12)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 內容中の (2)의 『會議 또는 會合, 科學, 行政, 宗教, 運動 등에 參府할 目的으로 一國의 代表 또는 隨行員의 資格으로 國外에 旅行하는者』라고 한 것에 該當된다. 勿論 여기에서 嚴密한 意義로서 解釈하면 南北韓이 外國은 아니다. 그러나 南北韓은 政治的 現實面에서는 相互가 「對決하는 두개의 政府」를 이루고 있는 것은 現今의 世界가 「두개」의 陣營으로 對陣하고 있는 現情勢下에서는 嚴然한 事實임을 肯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民族的 「念願으로」서는 이러한 不合理하고 非法的인 分斷을 南北交流로서 統一에로 昇華시키자는 것이며 또한 그러기 爲해서는 아이로니칼한 論理일지라도 分斷의 現實을 制度化로서 肯定한다는 것이 先行條件으로 되어 있다.

註 12. 이는 各國 政府觀光機關의 國際聯盟으로서 103個國의 政府觀光機關 및 88個의 觀光關係團體가 加盟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交流를 實踐하기 爲해서는 南北間에 最少限의 安定 關係를 必要로 하며 이 南北關係의 安定化는 分斷의 制度化를 通해서만이 비로소 可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統一을 爲한 交流가 分斷의 制度化를 先行條件으로 必要하게 된다면 統一의 目的 達成을 爲해서는 矛盾된 理論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政治의 世界는 理論의 테두리에 구애받지 않고 理論적으로 說明 안된다고 해서 있는 現實을 否定할 수는 없다. 南北調節委員會에서의 合意事項은 南北關係 改善作業의 原則論的 段階를 매듭짓고 이제부터는 實務面의 검토 討議가 있을것으로 豫想하고 바야흐로 本軌道線上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意義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高次元의 幅넓은 對話가 始終一貫 『眞摯한 民族愛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上述한 合意內容이 우리側의 提議中 李厚洛—金日成 會談에서 原則的 合意를 본것이라든지 이번會議에 있어서 北韓側의 報道姿勢가 그 前과는 全然 달리 進歩와 開放的 志向을 보여 준것 등의 事實이 重要視되겠다. 여기서 우리 南北韓 同胞들은 偉大한 變化속에 새로운 民族史가 前進적으로 創造되어 나가고 있음을 實感하게 되었다.

(2) 우리의 立場

이러한 狀況判斷에 立脚하여 우리는 隨伴招待觀光을 앞으로의 모든 會談에서 實施하도록 提議하고 또한 滿般의 準備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南北交流로서의 첫段階에서부터 人的交流인 南北韓 相互往來인 觀光旅行의 實現을 提案할것을 定立하고 具體的인 問題는 다음 章에서 詳論키로 하겠다.

萬若에 우리가 過去에만 執着한다면 分斷 雙方間의 統一이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統一前段階인 「統合」 形態라도 指向해야 한다는 것은 前述한바와 같다.

여기서 再論하거나와 南北이 비록 理念과 體制 또는 思想을 달리 하고 있을지라도 같은 民族의 同胞이기 때문에 더 以上 過去에만 執着하는 나머지 未來를 저버릴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南北接觸이 시작되었고 7.4 共同聲明의 發表를 보게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번의 제2차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會議에서 보는바와 같은 刮目할 事態進展을 가져왔다. 이것은 現在가 過去보다 優越하다면 未來는 現在보다 한층 더 훌륭해질 것으로 展望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希望과 信念을 가지고 進取的 開拓的 姿勢로서 民族의 榮光을 向한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註13) 『南北對話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會談過程에서도 그렇겠고 특히 窮極的으로 바라는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까지에는 여러가지 數많은 어려운 고비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

註13. 維新的 첫해, 朴正熙大統領 年頭記者會見 全文中 P.60-61.
文化公報部刊

다는 事實을 우리는 確實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南北의 民族은 勿論 한 民族입니다. 한 핏줄기를 탄 같은 民族인데 同族인데 그러나 思想이라든지 理念이라든지 體制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아주 極端的으로 對立된 相反된 그런 位置에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우리가 極端的으로 對立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對話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많을것 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豫測하고 있습니다. 南北間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不信과 誤解가 남아 있는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不信을 없애고 誤解를 푸는데 努力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漸次 雙方이 相對便을 理解하는 努力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祖國의 平和統一의 神聖한 使命을 지닌 大統領의 말씀과 같이 우선 敵意를 解消하고 戰爭의 威脅을 除去해야 한다. 생각컨데 지난 20여년 동안 持續되어 온 南北間의 軍事的 對決로 우리 民族의 에너지가 그 얼마나 많이 非生産的 分野에서 消耗되었던가는 哀惜한 일이다.

앞으로 南北이 軍事的 對決을 止揚하고 平和的 經濟建設面에서 어느쪽이 더 훌륭한 実績을 올릴 수 있느냐를 競爭하고 이러한 善意의 競爭과 더불어 南北間에 經濟 社會 및 文化的 交流를 實施하고 또한 文化 藝術 體育等 分野에서 對外的으로 共同步調를

取하여 國際舞台에서 民族的 優秀性を 發揚하는 가운데 和解와 協助의 분위기를 造成해 나간다면 마침내는 平和統一의 念願도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지난번의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會議가 開催되기 까지에는 우리 韓國政府의 뛰어난 經綸과 果敢한 決斷이 決定的 作用을 하였다.

지난 날에는 한 날 幻想처럼 생각되었던 것이 이제는 이미 現實化되어 南北往來가 우리 政府의 「해케모니」 밑에서 四半世紀 동안 굳게 닫힌 帳幕의 門이 열렸던 것이다. 어느쪽이 먼저 앞장서서 相對方을 찾아 갔는가의 엄연한 事實이 立証해 주고 있다.

이러한 果斷性 있는 主導는 祖國의 分斷狀態에 終止符를 찍고 갈라진 南北을 平和的으로 統一해야 하겠다는 情熱的 意慾과 높은 民族的 使命感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前述한 朴正熙大統領의 年頭 記者會見 內容中에서 (註14) 『또 다시 同族相殘의 悲劇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다. 萬一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問題가 아니라 南韓도 이로우

註 14 . 前掲書, p. 57-59

것이 없고, 北韓도 利로울 것이 없고, 結果的으로는 우리 民族全体의 하나의 수치다. 悲劇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무슨 方法을 써서라도 戰爭再發만은 막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의 決心이었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5천만 民族의 한결같은 念願인 同時에 우리 民族의 大義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昨年 5월달에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을 秘密裡에 平壤에 派遣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 할것도 없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戰爭을 未然에 막고 平和統一의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이러한 全民族의 念願을 한번 實質的인 行動으로써 推進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모험이었읍니다. 그러나, 戰爭再發이라는 民族의 이 悲劇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斷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나는 情報部長을 平壤에 보낼 때 過去 우리 「三國時代」의 歷史를 回想해 보았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三國時代」에 「三國統一」이 되기

전에 新羅, 高句麗, 百濟 三國이 鼎立狀態下에서 그때도 所謂 南北 對話가 있었습니다.

新羅의 金春秋 뒤에는 王이 되어서 太宗 武烈王이 된 분입니다. 마는 金庾信將軍과 議論해 가지고 高句麗와 協商을 하기 爲해서 金春秋가 單身 當時의 高句麗 首都 平壤을 訪問했습니다. 그때는 金春秋를 高句麗가 抑留해 가지고 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뒤에 간신히 거기에서 脱出해 나왔는데 이러한 故事를 생각해 보면서 民族의 悲劇을 未然에 막기 爲해서는 이러한 모험도 敢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多幸히도 그結果 南北間에 理解가 順調롭게 進展이 되고 歷史的인 「7.4 共同聲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對한 北韓側도 「平和的 統一」의 口號를 내세워 왔으나 오늘의 南北間의 現實아래서는 平和統一의 最終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여러가지 先行條件이 充足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온다. 즉 그 條件이 南北間에서 軍事的 衝突의 素地가 徹底하게 除去되어야만 緊張狀態가 緩和될 것이며 한便으로는 積極적으로 南北關係의 改善의 분위기 造成을 爲한 諸般의 交流가 實施됨으로써 不信과 誤解를 줄고 民族의 一體感과 共同運命體로서의 同胞的 愛 族意識에서 統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앞으로의 南北接觸에는 반드시 이와 併行하는 相互往來의 招待觀光을 擴大해서 實施하도록 南韓側에서 「이니셔티브」를 取해야 할 것이다.

이 招待觀光의 擴大方案은 우선 平壤側 代表들이 서울에서 會談할 때를 期하여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많은 곳으로 招待觀光시키도록 日程을 짜서 은근히 새로운 觀光地域으로 誘引하도록 할 수 있다. 새로운 地域選定은 平壤側 一行에게 보여 주고 싶은 場所로 해야 함은 勿論이다. 우리가 北韓內의 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招請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거 爲한 마음에서 우리가 먼저 先심 攻勢를 取해야 한다.

서울에서 會談時에 우리가 여러 곳을 골라 가면서 多樣하게 觀光을 시키게 되면 平壤에서의 會談時에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俗談에 「쪽재비 도 낮짝이 있다」는 말과 같이 互惠的 禮儀로서 우리의 招待에 對答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設或 우리가 厚待로 거듭 款待한다면 아무리 共產主義者일지라도 우리의 好意를 敵意로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 視察見學觀光

視察見學觀光이라 함은 南北韓의 서로 달라진 制度下에서 이룩된 外觀的 施設物 또는 運營狀態등을 相互視察함으로써 이쪽것과 저쪽것의 長短을 比較하기 爲해서 見學을 함으로써 取長補短으로 共同生活圈을 形成함으로써 窮極的인 平和統一에의 接近策으로 하려는 觀光을 意味한다.

이러한 機能의 觀光은 주로 相對方에게 「보이기 爲한 觀光」이며 <보라 우리의 制度가 이와 같이 훌륭하니 이대로 따른 것이 좋지 않느냐>의 말 없는 宣傳 弘報의 役割뿐만 아니라 洗腦工作的 效果를 노리게도 될 것이다.

南韓側에서 이미 實施한 바 있는 産業視察團이라든지 工業團地見學등은 이에 속한 것이었다. 이러한 視察觀光은 政府機關의 嚴格한 統制的 「스케줄」안에서 施行되어야 한다.

따라서 觀光主体로서의 觀光客은 申請側에서 一定한 規格의 특에 適합한 者를 選定해서 團體를 構成해야 한다. 이 觀光目的은 P.R에 있다.

P.R이란 政府나 企業體등이 一般國民 또는 從業員이나 顧客등에게 信任과 理解를 얻기 爲해서 行하는 各種의 宣傳活動이다.

南北關係에서 交流로서의 視察觀光旅行은 南北韓 人士들의 相互往來로서 하나의 祖國 땅에서 異國같이 멀고도 아득한 異域처럼 보였던 南北이 서울이나 平壤을 中心으로 하더라도 一日生活圈內에 속하게 된 것은 交通手段의 急激한 發展으로 因한 相互觀光交流로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南北이 제나름대로의 樂園을 꿈꾸고 努力하고 있는 現實을 視聽覺을 통해서 觀察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同時에 理性的 判斷과 相互 比較的 批判으로 觀察者의 意識構造上에 革新的 變化로서의 同調的 適応傾向이나 或은 반발적

증오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視察見學觀光을 받아 들이는 側에서는 自体整備에 依한 改善이 增進되어 <자 우리를 보아라>라는 萬般態勢를 갖추게 됨으로써 躍進이 加速化될 것임은 明若觀火한 事實이 될 것이다.

이러한 P R의 効果는 本來 19~20世紀에 걸쳐서 美國에서 發生한 資本家の 自己 矯正 思想에서였다.

즉 高度로 資本主義化한 巨大한 企業이 一般大衆의 反感을 사고 同時에 企業內部에서도 經營幹部들의 思考方式이 全体 従業員에게 理解되지 않았기 때문에 經營이 圓滑하게 되지 못했다.

이로부터 資本家は 먼저 自己分析과 矯正을 行하고 對外的으로는 意思傳達의 活動을 함으로써 信賴와 好感을 얻도록 하는 宣傳活動을 했다. 이것이 P R이다.

이러한 機能의 觀光旅行은 南韓의 自由經濟下에서의 「새마을 農村」등이 對象으로 될 것이며 北韓에서는 協同農場등이 이에 對한 比等한 觀光對象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ㄱ) 보고파 하는 사람끼리 相逢招請觀光

이 觀光은 戰亂에 因한 離散家族들의 再會 相逢을 爲한 觀光旅行이다.

前述한 視察觀光 보다도 한거름 더 나아가 사람을 만나기 爲한

觀光旅行이다. 南北 雙方이 人道的 同胞的 次元에서 同情的으로 許容하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刑政制度에도 비록 犯法죄수자에게도 面會한 制度가 있고 戰爭에서의 포로도 相互釈放交換制度가 있다. 하물며 本意아닌 同族間의 離散別居者를 相逢케 함은 同族的 次元에서 再會의 機會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博愛精神에서도 바람직한 同族愛의 具顯이 될 것이다. 다만 그 對象者의 範圍는 雙方의 當局이 認定한 者에 限定해서 團體構成으로서 또한 嚴格한 統制下에서 招請하도록 함에 있다. 이는 最初 段階에서이다. 이미 南北赤十字會談에서 討議中인 問題이기는 하나 그中에서 實現可能性이 많은 部分의 이 招請觀光을 第3次的 段階로서 提案하자는 것이다. 즉 前述한 두 段階의 相互往來가 雙方間에서 充分한 效果를 견우었다고 認定하는 実績을 土臺로 하여 實施하자는 것이다.

(라) 自由觀光이다.

이 觀光은 마지막 段階에서 實現될 性質의 것으로서 自由世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國內외의 自由觀光을 意味한다.

또한 南北關係가 高度로 改善되어 相互間에 往來의 自由通行이 認定된다는 先行條件이 成熟된 然後에 비로소 實施할 수 있는 것이므로 現段階로서는 時機尙早의 課題이다.

3. 觀光의 主体 (觀光客)

(가) 隨伴招待觀光의 觀光客

公的會談의 代表者 및 專門委員 또는 隨行員 報道障 晤서 버 등을 包含한다.

이러한 會談의 雙方 代表들의 資格, 人員數의 構成問題는 事前에 미리 雙方의 合意로서 豫定된 者라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觀光客中에는 外國의 通信報道陣은 雙方이 互惠精神에 立脚하여 推薦할 수 있고 相對方이 承認을 하면 參加시키도록 함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다. 그것은 韓民族의 共同協力精神을 널리 世界에 誇示함으로써 韓民族全體에 대한 이미지를 改善하고 民族的 卓越性을 자랑할 必要에서이다.

(나) 視察見學觀光의 觀光客

南北調節委員會 속의 文化社會分科委員會의 定한 바에 따라서 南北韓內의 住民에게 北쪽땅 또는 南域땅은 異邦이 아니요 外國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시키기 爲해서 보이는 것인데 우리들이 서로 協力만하면 하나의 同胞가 하나의 강토안에서 統一될 수 있고 따라서 自由 往來의 同一生活圈을 이룩할 수 있다는 信念과 勇氣와 使命感을 갖도록 認識시키기 爲함이다.

그러나 現實狀況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고 또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再統合될 수 있는가를 視察함에 觀光目的이 있다.

그러기 爲해서 南北雙方은 서로가 우리는 이만큼 發展했고 또한

建設해 나가고 있다는 樣相을 보이게 함에 있다. 그것은 弱靈的으로는 歷史的 運命이 우리들에게 우리 손에 依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質質이 充分이 갖추어 있다는 事實을 自覺케 함에 있다. 이러한 엄숙한 歷史의 불결소리를 우리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마음 깊이 명심케 함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意圖에서의 觀光主体는 勿論 받아드리는 側에서의 엄격한 統制下에서 視察團을 構成하는데 그의 指定하는 對象地域 및 日程下에서 미리 分科委員會에서 約定한 人員數로 定하여야 한다.

그 參加資格은 이러한 見學視察의 目的을 理解할 수 있는 者로서 또 그 視察効果를 實踐할 能力을 가진 者라야 하겠다.

그러자며 例를 들면 南韓에서는 現政治秩序를 肯定할 뿐만 아니라 社会的으로도 指導層에 속하고 獻身努力하는 模範的人物이여야 한다. 이러한 「틀」의 範圍에 들어가는 分野는 政治人, 文化人, 學者, 教育者, 言論人, 企業家, 産業勤勞者, 演芸人, 農漁村指導者, 公務員등 廣範圍한 分野에서 對象者를 選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光이 實現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側에서는 一定한 場所에서의 宿泊 및 歡迎宴 또는 土產物 或은 生產品의 見善物등도 配慮함으로써 낯선 同胞들에게 溫情과 理解와 寬容으로써 愛國心啓發의 精神深化에 置重해야 될 것이다.

勿論 現段階의 政治的 社会的狀況下에서는 旅客의 身邊의 安全保障뿐만 아니라 雙方 當事國의 安保上 徹底한 統制下에서 만이 實

施되어야 한다.

(나) 相逢招請觀光의 主体

南北 相互間의 住民들이 「저쪽」에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 離散된 父母 兄弟 親戚들 그러나 北韓側이 果然 그들의 住民中에서 이러한 見學視察을 할 수 있게 許容할 것인가? 자못 疑問點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北韓에서는 27年間の 社會主義建設과 革命的 結果로서 우리 南韓의 傳統社會와는 根本적으로 相異하는 異質的인 社會主義制度를 形成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集團主義體制는 從來의 家族制度를 파괴하였고 9歲以上の 住民들을 組織化시켰다. 즉 「하나 는 全體를 위하여!」하는 口號는 個人 또는 家庭의 利益보다도 組織의 利益에 服從하라는 것이며 그것은 個人으로서의 人間의 犧牲을 強要하고 있다. 人口의 約 12%를 占하고 있는 170餘萬名의 共產黨員은 모든 分野에서 細胞組織으로 박혀 있으며 이들의 監視와 統制 속에서 一般住民들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特別히 北韓住民들은 金日成 追從者 中間層, 自由民主信奉者(1名 복잡한 군중) 등으로 區分해서 居住制限까지 하고 있으며 各洞 各里에 는 23名의 安全軍官(秘密警察)을 常駐시켜서 住民動態를 監視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自由活動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다.

特別히 1958年末부터 始作한 5戶担当制란 것이 住民統制機構의 하나로서 住民生活의 全般에 걸쳐 監視의 눈초리가 매섭다. 즉 北韓의 全世帶를 5戶씩 묶어서 熟誠黨員 1名을 配置시켜서 指導

하기 爲해서 構成된 統制機構이다.

따라서 5戶를 担当한 宣傳員은 各戶의 夫婦愛情關係까지에도 介入하고 子女教育등 生活全般에 걸쳐 指導와 監視를 하게 된다. 이에 關한 그들의 出版物 「勤勞者」 1962年11月号에서 「5戶担当制에서는 責任指導員들이 5戶内外의 작은 世帯를 分擔하는 만큼 每家庭 每個人들과 日常的인 接觸을 通하여 그들의 知識, 素質, 趣味, 希望, 思想動態를 正確히 指導하게 된다. 5戶担当制 指導事業은 生産에서 家庭에 이르기까지, 成人으로부터 兒童에 이르기까지 모든 部門을 包括한다.」라고 強調하였다. 職場에서 勞動規律을 違反하였거나 責任量을 未達했을 경우 職場에서만 批判을 받는 것이 아니라 5戶担当員 臨席下에 家族會議에서도 追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社會的 統制로서 公民登錄制 實施와 居住制限, 旅行의 制限등 갖가지가 있다. (註15) 이러한 現實아래서는 오직 黨에서 決定한 者만이 對象者로 된 것이다.

中에서 누군가 만나 보고파 하는 者를 自己側 分科委員會에 申請케하고 一定한 期間内에 接受된 申請者 名單을 共同分科委員會에 提出하여 名單交換을 한다. 그후 各己 行政關係機關을 通하여 雙方은 放送 또는 新聞紙上으로 公告한 후 一定期間内에 生存 및 所在가 確認되면 招請觀光客으로서 指定与否를 審査決定한다. 그리하여 招請指名된 者의 一定人員數의 團體를 構成하여 指定된 場所에

註15) 民主統一論 73년도 (I) P192 와 196

一定한 時日에 보고과 하는 者끼리 再會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줌으로써 南北分斷의 現實的인 苦痛을 部分的이나마 덜어주자는 人道的事業을 實現해 보자는 것이다.

나만 招請받아야 할 觀光客의 資格은 越北 또는 越南하게된 動機가 自意에 依하지 않고 오로지 戰亂을 避해서 不得已 失郷하게된 離散者라야 한다. 이러한 限定된 意味로의 觀光者를 特히 招請觀光이라함은 外勢에 因한 国土分斷直後の 混亂中에서 또는 6.25 民族動亂中の 砲火를 避해서 越南 또는 越北하게된 離散家族을 民族的 침피로서 苦痛을 덜어주자는 속죄적 意義를 內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招請觀光의 主体中에는 自己故郷 땅에 침을 뱉고 빠져나서 越南 或은 越北한 者는 包습시키지 않는다. 北韓 社會에서는 反動乃至 要監視人物을 表面化시켜 再入國시킴은 政策上 忤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招請觀光者가 指名되면 相互 主管側의 統制下에서 그의 스케줄에 依해서 指定된 都市 其他 適當한 指定 場所에서 團體的으로 再會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觀光旅行에 所要되는 費用은 身辺의 安全保障의 責任을 지는 主管側의 所要費用을 감안하여 그 經費는 觀光客의 全担으로 하는 것도 無妨하다.

(라) 自由觀光의 主体

이 自由觀光 이야 말로 觀光旅行의 本然의 形態인데 이는 南北關係가 幅 넓고 高度로 또는 深化되어서 南北相互間에 往來의

自由가 認定되는 狀況下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때에는 完全한 統一을 보지 못한 狀態일지라도 어떠한 形態의 統合國家로서 모든 男女老少가 자유롭게 旅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觀光의 戰略的 時期

(1) 可能的 時期 選定

(가) 隨伴招待觀光

이 觀光의 時期는 主目的인 會談에 隨伴하는 것이므로 會談日程中에서 會議에 支障되지 않는 範圍內的 觀光이다. 따라서 會議開催中이라도 雙方의 見解나 意見의 對立으로 새로운 打開策을 모색한다든지 上部層의 訓令이나 指示등을 기다리기 爲한 休會中에 觀光旅行으로서 會談분위기 更新이나 研究의 時間을 要할 때에 利用할 수가 있다. 또는 어떠한 議題에 關하여 相對方의 沒理解로 因한 非現實的 主張을 하는때라든지 억지 固執으로 얼토당토 않는 謬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相對方에게 証拠로서 보이기 爲해서 可能的 것이면 觀光으로 보여줌으로써 理解를 促求시키려는 때도 있을 것이다.

다만 觀光의 時期는 一般的으로는 旅行에 不便없는 氣候條件을 감안해야 함은 두말 할 것 없다.

(나) 見學 視察 觀光

「보이기 爲한」이 觀光은 展示物 或은 對象地의 商品價值나 客觀的 外觀的 自然條件의 最盛期를 揀하여 가장 좋게 印象을 줄 수 있는 時期를 揀해야 할 것이다. 그 時期란 季節的인 時期 뿐만 아니라 對象의 關聯行事時라든지 뜻있는 適期를 揀해서 우리 側이 우선 視察旅行을 招待하게 되면 相對方도 이에 呼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見學視察 觀光을 北韓側에서 그들 住民들로 하여금 果然 派遣旅行토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北韓事情에 立脚해서 검토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北韓執政者들은 그들의 住民을 徹底하게 統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北韓의 統制社會와 그 住民 (註 16)

北韓側은 「모든 勞動力을 組織的으로 動員하기 爲해서 各種의 組織體系 즉 「黨」組織을 비롯 「職盟」 「農勤盟」(農業勤勞者 同盟) 「社勞靑」 「女盟」 「少年團」등에 男女老少를 加入시켜 한사람의 勞動力을 所屬組織體를 通해서 二重三重으로 動員하는 手法을 쓰고 있다.

1958年9月 所謂 「全國 生産革新者大會」에서 金日成은 「集團的 勞動과 지혜에 依한 勞動 革新運動을 더욱 広範히 展開하여 勞動生産能率을 最高度로 높혀야 한다」고 指令을 했다. 이것이

註 16)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刊, 民主統一論, P.161-163 參照

契機가 되어 所謂 「千里馬 運動」이 展開되었는데 그후 이것을 深化시켜 所謂 「셋별보기 운동」 「빈손 退治運動」 「열두바닥 굶기운동」 「허리안펴기 운동」 「한짐더지기 운동」 「한손갈 덜 먹기운동」 「국 안먹기 운동」등 해괴한 이름의 갖가지 運動을 이룩하였다. 不足한 勞動力 充足을 爲해서 人口增加에 拍車를 加하는 한便 在日僑胞의 北送까지 勸策하게 되었고 고된 重勞動에서 오는 住民들의 不滿을 解消시키기 爲해서 高度의 緊張感을 造成하여 마치 全面 戰爭이라도 臨迫한것 처럼 極度の 耐乏과 忍耐를 促求하여 왔다. 또한 金日成 独裁体制를 強化하고 일단 有事時에 對備하기 爲해서 北韓住民을 金日成 追從者와 中間層 및 自由民主主義 信奉者등 세가지 階層으로 區分하고 平壤등 主要都市에는 「追從者」를 남기고 自由民主主義 信奉者들은 山間僻地로 내쫓아 大대의인 人口移動을 斷行했다. 그러한 措置에 따라 惹起될지도 모르는 住民들의 不滿과 思想的動搖를 未然에 防止하기 爲해서 1966年4月부터 69년까지에 恐怖의 「住民 再登錄事業」을 일제히 實施한 바 있다. 즉 그들은 各里에 2~3名의 安全軍官(秘密警察)을 常住시키고 該当地域의 「黨 委員會」로 부터 補助員까지 配當 받아 6~7名이 한組가 되어 大대의인 成分 調査를 實施한 바 그 調査 對象者는 3代까지 거슬러 올라가 祖父母의 出身成分과 直系八寸 그리고 傍系四寸의 成分까지 露出당하고 말았다. 北韓의 이러한 一聯의 措置는 戰爭에 對備하여 이른바 「깊이 숨어 있는 敵」을 徹底히 索出하여 戰爭力量을 再配置하는 底意에서

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狀況下에서의 北韓住民들의 生活相은 悲慘할 수 밖에 없다. 金日成은 「나라의 福利增進에 對한 配慮- 이것은 勞動階級の 國家活動의 最高峰이다. 우리가 社會主義的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爲하여 鬪爭하는 目的도 結局은 모든 人民의 物質的 文化 需要를 圓滿히 充足시키며 富裕하고 文明한 生活를 保障하려는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고 1969年度 歲出入 豫算에 關한 「財政的」報告에서도 「人民들의 生活向上을 自己活動의 最高 原則으로 삼고 있는 우리 「黨」과 「政府」에서는 經濟建設과 軍事建設을 同時에 힘있게 밀고 나가는 어려운 條件에서도 人民生活에 對한 「黨」과 首領의 크나큰 配慮를 實現하기 爲하여 莫大한 國家資金을 支出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住民의 物質文化 水準의 向上은 고사하고 人間으로서의 基本生活에 必要한 衣 食住問題조차도 제대로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因하여 北韓住民들의 不滿은 더욱 累積되어 눈에 안보이는 罷業活動이 늘어나고 生産品의 質도 粗雜하게 되었다.

또 北韓의 社會構造는 徹底한 集團主義原則에 立脚하고 있다. 즉 生産手段의 個人所有가 認定되지 않고 集團主義 原則 위에 있는 北韓社會에 있어서 価値의 配分이 極度로 偏頗적인 것은 조금도 異常할 것이 없다. 北韓에도 「새로운 階級」이 形成되고 있다. 元來 共產主義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말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獨裁가 勞動階級の 獨裁를 말한다면 北韓이 共產主義를 指向하는限 勞動階級の 獨裁體制를 이룩하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獨裁體制는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立脚한 勞動階級の 獨裁라기 보다는 「金日成의 個人獨裁體制」로 되어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個人獨裁 體制에 忠誠하는 階層이 이른바 「새로운 階級」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 北韓의 現實이다. 이것을 端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唯一思想 體系」를 高唱하는 金日成의 偶像化論이며 北韓住民들에게 強要되는 衣, 食, 住生活의 現況이다.

北韓의 社會構造는 共產黨을 上部階層으로하고 勞動者, 事務員, 協同農場員이 下向的 階層 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金日成이 말한 「社會主義 體制의 確立」이란 企業家나 商人, 自由人 其他 多元的인 社會階層이 抹殺된 狀態를 意味한다. 外部 社會에서 隔離되고 閉鎖된 環境과 一切의 異質的 要素의 介在를 否定하는 社會體制 속에서 平均 成年男女 2~3 名中 1名 꼴인 共產黨員의 監視와 統制下에 黨路線의 強行에 動員되고 있는 北韓 同胞의 処地는 너무나 深刻한 現實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觀點을 달리할 때 北韓의 支配機構, 經濟構造, 社會體制는 外見上의 硬直性에도 不拘하고 不治의 脆弱性과 通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金日成의 所謂 「自主路線」도 따지고 보면 스스로의 脆弱性을 隱蔽하기 爲한 하나의 「제스추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上部階層에 屬하고 있는 南北韓 對話의 主役들이 이미 몇차례 往來를 했었고 또 그것이 雙方間에 理解를 促

進시킴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進一步로 앞으로 더욱 視
察見學觀光에 까지 擴大深化시켜 나가자는 것이며 이로써 北韓住民
들도 同胞인 以上 人間的 基本欲求인 「自由에의 歸還」의 길로
우리가 引導하자는 것이 우리側의 戰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北韓側의 非人間的인 統制가 더욱 強行되어 그
것이 北韓体制의 崩壞를 自招할 脆弱性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外部
의인 國際勢力의 角逐戰이 成熟될 때에 南北韓民族의 平和統一을
自主的으로 成就할 날을 促成시키려는 先決條件이다.

(가) 相逢招請觀光의 時期

招請觀光者로 指定을 하여 相互相逢의 恩惠를 베푸는 以上
그들 當事者들의 心情을 생각해서 祖上에 省慕하는 季節등을 攄함
이 行政當局에 對한 고마움을 더욱 느끼게 할 것이다. 西歐世界
에서는 크리스마스 등 共通된 名節이 있으나 우리 南北韓에는 오
늘날 現實에서는 이러한 것이 通用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장 合
理的 季節은 亦是 祖上에 對한 追慕日인 省慕節 또는 旧正名節
或은 仲秋 8月 한가위節등의 時期가 有義한 時期로 볼 수 있다.

(나) 自由觀光의 時期

이는 구태어 時期選定을 앞드라도 住民들 各自가 春秋의
좋은 季節의 시즌에 自由롭게 適當한 場所와 能力에 따라서 觀光
旅行을 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그러나 現段階로서의 南北韓間에는 이러한 自由觀光은 期待할 수
없는 狀況下에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또한 金剛山 共同開發에 關한 問題는 別途로 研究할 問題로 남
겨두지 않을 수 없다.

5. 觀光의 對象地域 (南韓側 主管下에서)

(가) 隨伴招待觀光의 對象地域을 擴大해야 한다. 板門店 또는 서
울을 起點으로 하면 當日코스 目的地로서 春川이나 大田까지도 可
能地域에 들게 된다.

서울市街地 外에도 政府가 指定한 觀光地를 中心으로 그 附近의
主要한 곳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安養, (紡織工場) 仁川(製鉄 또는 유리工場) 江原道-
雪嶽山, 淸平(發電所) 忠北-俗離山(法住寺) 忠州(肥料工場) 忠南
-顯忠寺, 扶餘(落花岩) 등

(나) 視察見學觀光地

서울市街地를 中心으로 한外에 前記한 當日코스 觀光地, 또는
경기도내의 模範 새마을部落의 見學視察등이 좋을 것이다. 視察見學
의 中心地로는 서울市街地가 가장 適地일 것이다. 서울은 都市의
自然美와 더불어 곳곳에 散在한 由緒깊은 古蹟 現代式 高層建物이
一大壯觀을 이루고 建設의 메아리는 大韓民國 首都서울의 躍進相을
보여 줌으로써 國際都市로서의 面目과 發展相을 나타내고 있기 때
문이다.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正式名稱이 된 것은 8.15解放
이후부터였다. 그때 까지는 京城이라고 했었다. 서울이란 말은 新
羅時代의 서라벌(徐羅伐)이란 말이 오랜 세월동안에 音訓의 變遷을

겪어서 지금의 서울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뜻은 京都 즉 中央政府의 所在地를 意味한다. 서울이 歷史上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百濟때 부터이며 그동안 많은 歴史的 變遷을 겪은 후에 1946年부터 서울特別市로 되었다.

특히 서울市街地 觀光에서는 3.1運動의 震源地인 과고다公園은 반드시 觀察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北岳의 스카이웨이를 통하여 서울市街와 漢江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감의 機會를 갖도록 함이 印象깊을 것이다.

(나) 相逢招待觀光의 會見地로는 板門店이 第1次 會見地로 適合할 것이다.

거기서 1次會見後에 平壤 또는 서울을 見學하게끔 되면 그 얼마나 祖國의 고마움을 느낄 것인가!

6. 觀光旅行의 效果 및 影響

(가) 隨伴招待觀光 및 見學觀察觀光旅行은 實現可能性이 가장 濃厚하고 또한 現段階로서도 合理的 根柢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相互往來가 擴大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그 成果를 견을 수 있을 것이다.

(1)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 사이의 廣範한 政治的 交流(合議書 ②나항)에 미치는 影響

이러한 觀光旅行의 實踐으로 얻은 成果中 長點을 發見한다는 것은 竭極的인 平和的 統一의 素地를 굳게 構築할 信賴感 乃至 愛

族心を 啓發함에 있어서 머릿돌이 될 것이다.

百聞은 不如一見이란 格言과 같이 祖国강토를 分斷시킨 38 障壁을 넘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게 된 때에는 斷絶感의 오랜 세월동안에 굳어 버렸던 認識錯誤도 어느 程度 反省은 正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現實을 直視하는 올바른 判斷力이 意識 構造上에서 寬容의 變化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相對쪽은 異國같이 보이지만 同質性으로 回復할 수 있는 同族의 資質이 아직도 溫存하고 있다는 人間性의 밑바탕에서의 統一의 希望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勿論 우리와는 相異한 비위에 거슬리고 生理에 맞지 않는 「惡」의 樣相들이 우리에게서 短点으로 評価될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短点' 이러한 惡의 效果보다도 祖国의 平和的 自主的 統一이라는 大前提라는 次元에서 볼 때에는 長点과 「善」이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서 越等하게 評価될 수 있는 結果를 가져 올 것이다. 過去의 爲政者들은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式으로 南北韓 相對方을 「타부」視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베일」을 벗기고 赤裸한 참 모습을 서로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經濟的、文化的 및 社会的 交流에 미치는 영향

觀光旅行 自体가 社会的 交流의 하나의 具體的 方法이라고 본다면 文化的인 學術과 藝術의 交流를 함으로써 斷絶된 壁을 두고 南北相互가 自我가 아닌 西歐的 理念 및 思想과 体制의 文化

潮流에 휩쓸려 왔다는 것을 自覺하게 되는 契機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自我發見의 自主的 民族觀을 定立할 必要를 느끼게
되며 그것은 韓民族의 共同運命感을 啓發함에 있어서 韓國的 「루
네상스」를 期하려는 衝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에 關聯된 理論的 學說로서 「A.J. 토인비」의 말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註16)

「20世紀가 되어 産業革命後의 西歐生活樣式이 「러시아」에 큰
影響을 주었습니다. 이 衝激은 共產主義의 形態로 나타났습니다.
共產主義는 西歐自体가 實現한 産業革命後의 西歐的 生活樣式에 대
한 抗議 拒否이며 西歐「이데올로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의 分析은, 「인텔리겐차」의 論議에 당연히 속하
게 된다. 즉 知識人 乃至 文化人과 「이데올로기」와의 關係는
마치 聖職者와 宗教와의 關係 같다고 「대니얼 벨」교수는 말하고
있다. (註17) 그에 依하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18세기 말에
「프랑스」哲學者 「데스뉘트 드드라시」에 依하여 만들어 졌다.
그 信仰과 權威에 依하는 것이 아니라 즉 教會와 國家가 장려하
는 傳統的 方法과 다른 眞理를 發見하는 方法을 明確히 하려고
試圖하였다. 感覺知覺에 還元함으로써 의미하게 反宗教的 歪曲을

註16) 三星文化文庫 3, A.J 토인비 著 洪恩重 譯 對話, P.208

17) 前掲文庫 5, 이데올로기의 總論, 奇宇植 譯, P.266.

은폐하는 英國 經驗論의 뒤늦은 「프랑스」交種이었다. 一觀念이 淨化된다고 「드라시」는 생각하고 이 새로운 觀念의 科學을 「이데올로기」(觀念學)라고 불렀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함께 「이데올로기」란 말이 묘하게도 약간의 變形을 겪었다. 그의 著作<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처럼 「마르크스」의 경우 「이데올로기」는 哲學的 觀念論 或은 觀念은 自律的이며 眞理와 意識을 分明히 하는 힘을 獨立的으로 갖고 있다는 概念과 結付되었다.

唯物論者인 「마르크스」에겐 이것은 虛偽였다. 왜냐하면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였지 그 反對는 아니였기 때문이다. 觀念的으로만 現實을 묘사하는 어떠한 試圖도 다만 虛偽意識을 낳는데 不過했다. 이렇게 하여 「포이에르바하」를 좋아서 一「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와 疎外의 分析을 大部分 그로부터 끌어내었다. 一宗教를 虛偽意識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神은 人間精神의 創造物이며 外見上 獨立的으로 存在하여 人間의 運命을 決定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不過하다. 그때문에 宗教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一步 더 前進시켰다. 「이데올로기」는 單只 虛偽意識일 뿐만 아니라 特殊利益을 은폐한다고 말했다. 「이데올로기」는 眞理라고 주장하나 實은 特定集團의 要求를 反映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歷史속에서 하나의 單純한 事實이 있다. 즉 그것은 急進的 「인텔리 겐차」에 있어서 眞은 「이데올로기」는 그 眞理와 說得力을 喪失하였다는 事實이다. 靑

写真이 作成된다면 남은 것은 社会工学에 의하여 社会的 調和가 取해진 새로운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젠 거의 없다. 同時에 남은 對抗信念도 또한 思想으로서의 힘을 喪失하였다.

國家가 經濟에 대해서는 어떠한 役割도 遂行하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는 그런 古典的 自由主義者는 거의 없으며 최소한 英國이나 「유럽」大陸의 福祉國家가 隸從에의 길이라고 眞實로 믿고 있는 保守主義者는 거의 없다. 그러기 때문에 歐美世界에서는 오늘날 政治的 争点을 둘러싸고 大体的인 合意가 知識人 사이에 存在한다. 즉 福祉國家의 容認, 权力分权化의 所望 混合經濟體制 및 多元的 政治體系에의 合意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도 亦是 「이데올로기」의 時代는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意外의 事實이 있다. 즉 남은 19 세기의 「이데올로기」나 思想上的 論争이 生氣를 잃어버렸는데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新興國家는 그 民衆에 대해서 獨自的方法으로 呼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이다. 産業化, 近代化 汎아랍主義, 有色人種主義,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야말로 바로 그것이다. 20 세기 후반의 巨大한 政治的 社会的 問題 때문에 두 種類의 「이데올로기」가 明確히 區別된다. 19 세기의 「이데올로기」는 「휴머니즘」的이며 知識人에 의해서 形成되었다. 亞阿地域의 大衆 「이데올로기」는 偏狹한 道具的 性格을 가지며 政治 指導者에 依해 創出된다. 남은 「이데올로기」의 推進力은 社会的

平等과 廣義에 있어서의 自由였다. 이에 對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彈力은 經濟發展과 國家權力이다. 그리하여 民衆에 대한 大衆「이데올로기」의 呼訴에 있어서 소련과 中共이 「모델」이 된 것이다. 이들 나라가 發揮하는 매력은 이젠 自由社會라는 낡은 思想이 아니라 經濟成功이라는 새로운 思想이다.

그리하여 이 思想이 民衆에 대한 全面的 強制와 民衆을 놀아세우는 새로운「엘리트」의 대두를 代表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強制가 없으면 經濟의 進展이 그렇게 急速히 推進되지 못한다는 立場에서 새로운 抑圧이 正常化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關係에 있어서 우리들은 理念的 問題에 있어서도 歷史的 先後의 段階에서 独自の 自我發見을 爲한 中進段階에 있음을 認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南北은 經濟적으로도 아직 體制는 다를거라도 共通한 民族的 共同運命體에 있음을 相互往來를 통한 接觸으로 더욱 굳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意義는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側의 朴成哲 共同委員長代理가 平壤에서의 歡迎辭에서 말할「南北사이에는 現實적으로 理念과 制度上的 差異도 있고 意見의 差異도 없지 않지만 民族的 共通點에 比하면 큰 問題가 아니다」라고한 趣旨도 이에 適合된다고 볼 수 있겠다.

(3)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對峙상태를 解消하는 問題(合議書 ②라)에 도움이 된다. 즉 相互往來의 觀光旅行으로서 監視的 役割도 하게 되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에 拍車를 加하게 된다는 牽制的 影響力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 相逢招請觀光의 影響力

離散家族의 相逢을 爲한 招請觀光旅行이 許容된다면 그야말로 世界의 어느 分斷國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快事로서 世界의 모든 民族에게 自負하고 誇示할 수 있는 韓民族의 자랑이 될 것이며 이로써 지난날의 本意아닌 民族相爭의 不名譽스러운 수명도 벗겨지고 슬기롭고 平和的인 韓民族의 固有한 民族性을 나타내게 되는 轉禍爲福의 結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双方의 体制的 差異점에 미치는 影響

上述한 세가지 觀光旅行을 實施하더라도 그 效果가 곧 双方側 政治的 및 經濟秩序의 基礎에 重大한 變化를 가져올 程度의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展望은 할 수 없다. 다만 双方側의 實情을 더욱 理解하게 되고 따라서 不信感이 拂拭되고 信賴할 수 있는 同族感이 나져질 뿐일 것이다. 따라서 其他의 모든 交流를 積極的으로 推進發展시켜 實質的인 協議를 할 수 있는 素地가 整地되어 虛心坦회하게 民族의 良心에 쫓아 民族의 將來를 爲한 共同作業에 精力을 쏟을 수 있게 된다는 基礎工事が 이루어진다고 볼 따름이다.

한편 相互往來의 觀光旅行의 結果는 「얻은것」과 「잃은것」의 評價를 通해서 앞으로의 相互往來의 交流의 形態를 統一指向의 体制的 差異点에서 벗어난 「겹」을 매꾸기 爲한 새로운 努力은 從事의 照準을 修正함으로써 統一의 正鵠을 맞추는 方向으로 目標調整을 하게 됨을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或은 그와는 正反對 方向으로 戰略을 修正하여 새로운 힘을 育成시킬 緊要性을 느끼게 되는 裏面의 「겹

은」成果面도 豫測된다는 雙面的 效果를 看過할 수는 없다.

(타) 住民輿論에 미치는 影響

南北往來로서의 旅行의 實現은 限定된 範圍와 制限된 條件下에서 일지라도 一般住民들이 넘지 못할「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安全하게 가고 올수 있다는 現實化가 南北韓 住民들에게 두개의 分斷된 땅이 다시 連結되어 하나의 祖國으로 單一生活圈이 形成되어 간다는 安堵感에서 民族的 悲願의 한조각이나마 達成되어 한거를 더 나아가 統一된 祖國을 向해 그 餘勢를 相互協力面에 集中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側面에서 볼 때에는 이제까지 雙方이 이루어 놓은 累積된 制度나 秩序에 대한 保存 持續의 必要性이 雙方에 同等하게 合理的이라는 事實을 肯定하게 됨으로써 既存體制나 秩序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共存의 새로운 國家體制로 止揚되어야 한다는 見解에 同調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展望도 있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또한 國際情勢의 潮流에 順應하게 된다는 狀況에 이르게 되면 事態의 發展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물결에 合流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事態에로의 進入은 國際情勢의 變動 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周辺情勢가 南北韓 民族의 自決力을 이러한 「틀」안에서만 自律的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外的制約이 加해지게 된다면 힘의 力學關係에서 이루어지는 國際政治 속의 一環을 担当하는 우리 韓半島로서 이 強大國家의 利害에 拒逆할 수 있는 더욱 큰 힘이 없는 限 그 影響力을 받지 않을 수 없는 位置에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前述한 바와 같이 一般住民들은 從來의 「이데올로기」를 超脫하는 새로운 實利的 思考傾向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狀況判斷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이미 새로운 「이데올로기」에의 順應度에 있어서 國際情勢와의 敵感한 聯關下에서 伸縮性있게 意識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 現實面이 이를 證明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四. 觀光旅行提案의 戰略的 意義

1. 南北交流로서의 南北韓觀光旅行의 實現提案

南北韓間의 交流를 實施하여야 한다는 提案은 이미 오래전부터 北韓側에서 提議한바 있었다.

즉 「제네바」會談때에 (1954.4.27) 이른바 「平和統一案」으로서 南北交流를 促進시키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南北交流의 最初의 提議였다. 그후 南北對談의 接觸으로 이루어진 劃期的인 調節委合意事項 (72.11.4) 調節委 機能中 (다) 에서 『南北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問題를 協議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라고 雙方이 合議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南韓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上述한 交流의 意義로서의 觀光旅行을 提案하려는 戰略的 意義가 있다.

다음과 같이 分析을 해 보겠다.

(1) 對內的側面에서의 戰略

韓國內에는 維新的 體制 改革으로 인한 重圧때문에 社會的 全般에 걸쳐서 否定的 價值觀을 갖는 이른바 反體制的인 매서운 눈초리의 民意가 暗雲低迷狀態에 있다는 것 같다.

이는 維新國會 總選 結果로 따져본 < 2.27 總選과 民主主義 > 에서 與野의 對數가 22對 49이니 國民 7名中 단 2名만이 與黨을

支持하고 있다는 事實」에서도 볼 수 있다. 1)

뿐만 아니라 젊은 世代의 知性人들은 아직도 潜在的으로 간직하고 있는 <리지스트>의인 雜音現象을 保有하고 있음을 外面할 수는 없다. 이러한 現象은 오늘날의 韓國社會가 韓國의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爲한 不安定된 社會라 할지라도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立脚한 現秩序下에서는 있을 수 있는 現象이라고 自慰的인 見解를 갖는 意見도 있으나 現속의 危機政府의 歷史의 흐름속에 처해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대로만 방관할 수 없는 現實의 切迫感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向한 整地作業으로서 北韓側이 일찍부터 提唱해오던 交流의 하나로서 우리가 먼저 그 內容과 方法을 具體的으로 提議할 必要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對內的인 一部の 不滿을 南北相互 往來의 實現으로써 그 突破口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國內의 社會輿論을 維新憲法의 가장 으뜸가는 特徵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神聖한 使命을 實踐하기 위한 維新作業을 現實的으로 具體化 함으로써 突證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領導者의 國家的 權力의 力量을 誇示함으로써 國力의 總和를 期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萬若에 逡巡 躊躇하고 있다가는 北韓側이 先手를 쓰게 될지도 모르며 이렇게 되던 受動的 立場에

註 1) 73.3.2日附 朝鮮日報 3面.

서 서게 되어 國際的 輿論上으로도 利로울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各分野의 科學的 檢討가 끝나고 靑寫眞의 「플랜」이 作成되던 早速히 提議토록 함이 賢明한 措置가 아닌가 생각된다.

維新國會가 開會된 후 憲法이 保障한 限度內에서 일지라도 韓國의 現政治秩序에 對한 批判의 소리가 公公然하게 그들의 權利로서 議政壇上에서 소리 높게 퍼질것이 豫想이 된다.

萬若 國會의 運營을 그렇게 못하도록 有形이건 無形이건 어떠한 壓力을 加하게 된다면 「怒한 젊은이」들의 同情이 <리지스트> 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不幸한 事態가 없을 것이라고 斷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특히 오늘날의 韓國 靑年들의 思考는 아직 維新的 變革에 對한 理解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反體制 運動中에서 國家權力을 人間다운 生活을 抑壓하는 「惡」으로만 把握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狀況判斷이 그르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維新的 國家權力을 平和的 統一作業에 繼續적으로 傾注해야할 必要를 다시 느끼게 되며 그것은 또한 繼續적인 推進을 要請하고 있다는 것이 民族的 念願이라고 본다.

그의 指導理念은 民族史觀의 定立이며 또한 方向으로서 朴大統領이 금번의 3.1節 記念辭에서 밝힌바와 같이 『階級을 위한 것이 아니라 民族全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党派가 아니라 總和이며 分裂이 아니라 團結이어야 한다』고 力說했고 『어떤 경우에도

特定階級이나 党派를 主体로 보는 史觀은 絶대로 受諾할 수 없으며 階級보다는 民族을 앞세우는 民族史觀을 固執히 定立해야 한다.』고 한 基本理念을 土臺로하여 『오늘의 歴史的 現實이 過去 어느때에 못지 않는 一大 国難임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오늘의 이 国難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外勢로 부터의 解放을 絶叫했던 그날의 獨立萬歲를 5천만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統一의 만세로 昇華시키자』고 한 그精神이다.

따라서 實踐 可能한 南北韓 往來의 幅을 넓혀 人道的 및 非政治的 交流의 內實을 成就하자는 제 1차적 段階의 提議가 바로 이것이다.

(2) 对北韓의 側面에서의 戰略

첫째로 손꼽아야 할 目標은 北韓住民을 外界에 대한 無知로부터의 解放을 促求하자는 데에 있다. 南韓의 同胞와는 「斷絶된 障壁」으로 隔離되었고 外部世界와는 「閉鎖된 兵營化」로 因해서 「井底蛙」로된 그들에게 그 「唯一思想」이 人間生活의 精神바탕이 아니라 「새로운 民族史觀」定立을 理解하고 思索할 人間의 權利를 自覺시키기 爲해서 우선 사람이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本然의 人間姿勢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誘導해서 招請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然後에야 理解도 할 수 있고 共感도 가질 수 있고 同調도 바랄 수 있다.

둘째는 招請相逢旅行이 北韓側의 体制나 社会制度上으로 보아 쉽사리 實踐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들 代表團이나 隨行員기타 그들이

許容할 수 있는 限定된 人士들의 見學觀察觀光을 誘導함으로써 그
들의 人間改造부터 試圖해 보자는 것이다.

이 目的은 이미 南北接觸후 數次의 經驗에서 차츰 相互理解의
度가 깊어가고 있다는 經驗에서도 立証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더욱 擴大시켜서 應接室에서가 아니라 「안房」으
로 맞아드려 隔意없는 協議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홍정」에서 보다도 親族會議의 「相議」로 止揚시키
며 이것이 「對決이 아니라」 「協力하는 일」이 되겠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兄弟의 情을 느낄 수 있고 또한 土着人口比例
인 民主的 代表란 觀念도 받아 들이게 될것이다.

五. 觀光旅行의 實現을 爲한 協商戰略

南北對話가 進展을 보고 있다고 해서 北韓側의 統一政策이나 路線이 急變한것은 決코 아니다. 다만 그들이 外觀上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努力하고 있을 뿐이지 決코 內實이 變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對話의 相對者는 如前히 放心못할 存在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協商에 있어서 對話의 相對方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認識하고 對座하지 않으면 豫期치 못한 事態를 招來할 危險性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1. 北韓의 政策路線· 및 戰略과 戰術

北韓의 新憲法(72년 12月 27日의 社會主義憲法)에서 南北統一問題에 關하여 제 5조에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外勢를 물리치고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며 完全한 民族的 獨立을 達成하기 爲하여 鬪爭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北韓의 「民主基地」 또는 「革命基地」路線을 如前하게 闡明하는 同時에 7.4 共同聲明에서 다짐한 統一3原則 즉 自主, 平和, 民族的 大團結의 指向에 비추어 말성 없도록 表現을 부드럽게 했을 뿐 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形式的 名目的 意義밖에 두지 않는 憲法規定보다도 더욱

重要視하는 「党決定書」에 表現된 北韓側 意圖를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朝鮮勞動党 제 5 차大会 「決定書」(70年 11月 12日)에서 金日成의 報告를 引用하면서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者를 反對하는 民族解放 革命인 同時에 美帝의 앞잡이 들인 地主, 매 판資本家, 反動官僚輩들과 그들의 팃소統治를 反對하는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라』고 했다.

나아가서 造成된 情勢를 科學的으로 分析判斷하고 革命發展의 要求와 群衆의 意識水準에 맞게 政治鬭爭과 經濟鬭爭合法 및 半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큰規模의 鬭爭과 작은 規模의 鬭爭과 같은 여러가지 鬭爭形態와 鬭爭方法을 올게 結合하여 革命運動을 계속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強調한바 있다.

그와같은 「南朝鮮革命」의 指針은 南北對話의 進行에도 不拘하고 아직껏 党的 「레벨」에서 公式的으로 拋棄된바 없다.

北韓側이 「南朝鮮革命」의 性格으로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라고 規定을 지을때 그들이 主로 念頭に 둔것은 中共型의 革命戰略이었다고 觀測된다.¹⁾

中共이 國共合作과 政治協商會議를 暴力鬭爭과 結付시켜서 全國을 掌握한데 對해서 그들은 興味를 느끼고 있는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對話에서도 그들은 자주 「合作」을 말해왔고

註 1) 73.2월호 政治研究 P.151 (朴東雲)

政治協商을 앞세우려 했다고 觀測된다.

勿論 우리側은 그合作이라는 用語에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結局은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하는』式의 表現을 挾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또 72년 2월의 美, 中共 共同聲明에도 삽입한 「北韓側의 8개 항목 統一方案」은 本是 金日成이 1960년 8월 14일에 提議한바 있는 聯邦制 統一方案을 되풀이하고 부연한 것이다. 그 內容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美軍撤收 ② 10만線 相互減軍
- ③ 韓美, 韓日間 條約廢棄 ④ 自主的 南北總選舉 實施를
거친 統一的 中央政府樹立 ⑤ 南과 北의 統治活動 自由化
- 政治犯 釈放 ⑥ 完全統一에 앞선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
實施 ⑦ 南北交流 ⑧ 以上の 問題를 協議하기 爲해 各政黨
社會團體들과 全體 人民의 性格을 가진 사람들로서 南北政治協商會
議를 進行하자』는 것으로 要略된다.

그런데 北韓側의 政治協商 戰略은 革命情勢造成을 爲해서 相對方의 體制를 弱화시키며 自己들의 影響力을 넓혀보려는 策略이다.

具體的으로는 主要한 打擊對象의 漸次的 孤立化를 爲해서 南韓에서 中間勢力의 包摂을 노리며 「革命의 主力軍」에 對한 鬪爭의 呼訴는 「決定的 時機」가 到來될때까지 일단 미루어 두자는것 뿐이다. 最近 立證資料가 또 나타났다. 즉 北韓은 美議會에 書翰을 보내서 駐韓 美軍의 撤收를 要請하기로 했다는 外信報道이다.

北韓最高人民 會議가 이번 會議에서 新年度 豫算案을 發表하고

駐韓美軍의 撤収를 要請하기 爲해서 美國議會에 書翰을 보내기로 決定했다고 北韓의 中央通信이 4월 11일에 報道했다고 (AP=東京) 73년 4월 12일 朝鮮日報가 報道한바 있다.

以上과 같은 北韓의 이른바 「革命路線」의 戰略과 戰術을 要略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그들의 對南 革命戰略은 『南朝鮮에 民族的 및 階級的 矛盾이 더욱 尖銳化하고…… 人民大衆의 革命進出이 積極化되었으며…… 美帝의 植民地統治에는 보다 深刻한 危機가 造成되었다』는 그들의 對南情勢判斷에 立脚해서 展開되었다. 즉 1971년 4월의 最高人民會議 제 4기 제 5차 大會에서 허담의 報告에 따르면 北韓은 南韓社會의 基本的 矛盾相을 다음 두가지로 区分했다.

『① 民族的 矛盾 즉 美帝國主義의 植民地 統治 및 日本軍國主義와 이에 對抗하는 南朝鮮人民間的 矛盾.

② 階級的 矛盾 즉 美帝侵略勢力 및 日本軍國主義와 結托한 地主, 매관資本家, 反動官僚輩와 이에 反對하는 一般 人民大衆間的 矛盾』

이러한 兩大矛盾이 韓國內에서 날로 激化되어가고 있다고 主張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指向하는 革命戰略 目標도

『① 美帝와 日本軍國主義의 外勢에 對한 反帝植民地 鬪爭이며

② 이른바 國內 反動勢力에 對한 反팃쇼, 反封建 鬪爭이며

③ 現 南朝鮮政府의 顛覆에 依한 人民政權의 樹立이다』

따라서 그들의 具體的 戰術로는

① 『反帝, 反美, 反日 및 反植民地 鬭爭』을 포방한 民族解放運動의 煽動이다. 그들은 繼續해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主張함으로써 最近의 駐韓美軍의 縮少와 對韓支援의 減縮을 過大宣傳하여 韓國民의 對美 信賴度에 疑惑과 不安을 갖게 함으로써 窮極的 目標인 反美感情으로 因한 反美鬭爭으로 몰고간다.

또한 韓日關係의 善隣 緊密度를 逆利用하여 『日本帝國主義의 再侵, 日帝植民地政策의 復活 日本軍國主義의 再起』라고 宣傳하여 그 威脅을 誇張함으로써 韓國民族主義의 바탕인 背日感情을 鼓吹시키고 있다.

② 現韓國政府의 孤立化 乃至 顛覆이다.

韓國은 5.16 革命후 부터의 意慾的인 經濟成長과 祖國近代化 作業으로 民族中興을 이룩했고 昨今の 維新體制強化로써 激動하는 國際情勢에 対応할 굳건한 體制確立을 함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一大 威脅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은 그들의 憲法體制를 進一步하여 社會主義體制로 變改함과 아울러 南韓에 있어서 些少한 官民乖離 現象이라도 이를 惡利用하여 反政府的 騷擾와 亂動으로 誘導하려고 함은 變함이 없다. 그것은 多樣화된 自由民主 社會에서 常例的 現象인 一部 否定的 社會現象이라도 그것은 現政府의 抑壓政治下에서의 無能이며 腐敗現象이라고 宣傳하여 國民의 對政府 信任을 弱화시키고 窮極的인 反政府 暴動과 內亂으로 誘導하려는 戰術임에는 變함이 없는것 같다.

③ 反体制的 階級鬭爭의 煽動이다.

韓國社會의 飛躍發展을 이룩하는 開發過程에서 일어나는 成長 隔差問題등으로 일어나는 都市와 農村, 地域的 開發의 置重生役, 各 社會階層間의 不調和등 社會的 矛盾과 不均衡 不協和등의 成長에 隨伴하는 不平이 적지 않았던 것은 事實이다. 그들은 이러한 提供 해준 不條理를 口實로 삼아 階級的 反目으로 地域的 對立으로 鬭爭目標을 삼아 大衆組織을 通해서 反植民地政策 反資本主義鬭爭에 注力하고 있음은 變함이 없다.

④ 平和統一 宣傳攻勢의 戰術

北韓은 이미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發足を 그들의 平和的 統一路線의 勝利라고 宣傳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中共의 地位向上을 背景으로 하고서 國際的 緊張 緩和에 順應하는것 처럼 偽裝을 하고 美國등 有力言論人을 招請 活用하면서 南北關係의 改善과 그들의 平和 統一政策의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對南戰術은 要略해서 보면 美軍撤収主張, 國民分裂工作, 大衆鬭爭誘發이면서도 平和統一에 關한 南北對話의 對座에 임하고 있는 끔찍한 전략자들이기 때문에 放心할 수는 없다. 더욱이나 72년에 들어와 金日成은 外國의 「메스·콤」을 動員해서 北韓을 西歐世界에 積極的으로 宣傳하려는 意圖下에서 日本과 美國의 記者등과 여러차례 會談을 通해서 그의 政策路線을 밝힌바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要略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日本 「요미우리」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① 主体思想에 對하여 金日成은 革命鬭爭의 自主성과 創造性 具顯을 強調하고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의 路線이 具現되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自衛國防 概念은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自立的 軍事的 担保」라고 내세워 國防問題에 關한 特別한 關心을 나타냈고 主体思想의 理念的問題에 對해서는 그것이 ampus가 내놓은 『全世界 프롤레타리아들은 團結하라』는 原則에 基礎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完全히 符合되는 것이라고 했다.

② 統一問題에 對해서는 北韓의 全般的 情勢가 北韓住民의 革命에 有利하게 發展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韓國이 非常事態 宣布로 諸般情勢를 故意的으로 緊張시키고 있다고 非難했었다.

또한 統一方案으로는 71년 4월 北韓의 最高人民會議가 提案한 「8개항목」을 내세우고 南北赤十字 會談이 平和的統一에 有利한 分 위기를 造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注目할것은 韓國의 모든 政黨들과 雙務的 또는 多務的인 協商을 열어야 한다고 主張한 點이다.

③ 또 美國의 N.Y.T 및 W.P記者와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亦是 南韓에서의 美軍撤収와 「언커크」解体를 強力히 主張함으로써

註2) 72.12월호 北韓誌 (1972.北韓레이다) P.241

美軍의 韓國駐屯이 統一에 있어 제일의 障礙要因임을 밝혔다. 또한 韓國統一 問題에 있어서도 民族自決의 原則에 依하여 解決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피력하고 韓國에 社會主義制度를 強要할 意思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서 一般의 關心을 끌기도 했다.

이와같이 美國의 大新聞社 幹部를 招請한 北韓의 底意는 ① 그들의 當面한 基本態度를 美國民에게 周知시켜 同調 輿論을 誘導하고 ② 南北韓의 現狀固定과 政治的 對話를 認識시킴으로써 美軍撤収를 促進시킴과 同時에 美國으로 하여금 韓國政府에 南北韓間의 政治的 對話를 實施토록 壓力을 加하게 하려는 데에 目的이 있는 것으로 分析이 된다. 또 日本의 「마이니찌」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④ 特異한 點은 祖國의 平和統一을 빨리 實現키 爲해서는 「南北聯邦制」를 實施함이 必要하다는 主張이었고

⑤ 日本과 北韓과의 接近策으로는 國交樹立을 爲한 5개 平和共存 原則을 提示했다.

즉 ① 領土安定 ② 主權 尊重과 不可侵 ③ 內政不干涉

④ 平等과 互惠 ⑤ 平和的 共存이었다.

이어서 北韓側은 金日成의 73年1月1日의 新年辭를 통해서 앞으로의 課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를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3)

註3) 73.1월호北韓(北韓레이다) P.149

특히 注目を 끄는 것을 ① 經濟部問에서 消費品置重인데 北韓이 南北赤十字會談 등 交流를 通해서 韓國民의 生活形便을 直接 눈으로 보고서 그들의 生活처지가 落後된것을 새삼 놀란데에서 人民消費品의 量에서 品目を 늘리고 質에 있어서도 決定的으로 높이는 것을 今年에 遂行해야할 中心課題의 하나라고 指摘한 점이다.

또 金日成은 ② 思想革命의 強化로서 온社會를 革命化 勞動等級化 할것을 가장 重要한 革命課業으로 提示하였다. 이에 對해서 金日成은 社會主義 建設成果에 滿足하여 思想革命을 疎忽히 해서는 絶對안된다.

社會主義 建設이 成果的으로 進陟되고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이 빨리 높아질 수록 思想革命을 더욱 強化하여 모든 勞動者들은 徹底히 革命化 勞動階級化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그리고 勤勞者들 속에서 黨의 政策教養과 革命傳統 教養을 더욱 強化해서 他們을 「마르크스·레닌」主義思想 黨의 主体 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勞動者들이 黨과 革命을 爲해서 몸바쳐 鬪爭하는 黨의 참된 붉은戰士, 共產主義的 革命家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黨의 軍事路線強化 今年에도 全軍幹部化, 全軍 現代化, 全軍武裝化, 全國要塞化를 基本內容으로하는 黨의 軍事路線을 徹底히 貫徹해서 防衛力을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는 北韓側이 外面으로는 平和統一의 宣傳을 일삼는 것과는 달리 軍事力強化에 얼마나 큰 힘을 돌리고 있는가를 雄辯으로 말해 주고 있다.

④ 對外政策積極推進

北韓은 今年에도 계속해서 國際革命力量과의 戰鬪的 連帶性을 強化하여 世界모든 나라 人民들과의 親善協調關係를 發展시켜 革命偉業에 더욱 더 有益한 國際的 環境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北韓이 從來와 같이 共產主義 國家 및 親共國家들과의 連帶性強化에 그치지 않고 自由陣營 國家들과도 広範圍한 接觸과 交流를 推進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北韓은 日本을 비롯한 美國을 自由陣營 諸國家들에게 韓國과의 同等한 地位認定을 前提한 外交關係 設定을 劃策하고 今年 UN 總會에서도 同等招請問題의 貫徹를 爲해서 強力한 攻勢를 取할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外政策 方向은 國際緊張 緩和의 趨勢에 便乘해서 一面으로는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를 事實化함으로써 「두개의 韓國」을 確立하여 韓國과 對等地位를 얻음과 同時에 또한편으로는 反帝 反美鬪爭의 旗幟를 들고 韓國으로부터 美軍을 撤収시키는 條件을 造成해서 窮極의으로는 赤化統一의 機會를 앞당기려는 것과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平和戰術은 最近의 重大한 事態發展으로 活潑하게 展開되어가고 있음을 外信은 報道해 주고 있다.

즉 W.P 紙 2月14日 北京의 外信消息通을 引用報道했는데 4) 中共側은 키신저와의 會談에서 駐韓美軍의 撤収여부問題를 提起할

註 4) 73.2.16 조선일보, 美對아시아政策轉換信號
키신저北京行의 力學關係記事中

것 이라면서 北韓外相 許淡이 키신저에 앞서 中共의 周恩來를 만
난것은 中共을 通해 駐韓美軍撤収를 要求하려는 政治的 움직임의
하나라고 지적한바와 같다. 周와 許는 駐韓美軍撤収와 언커크解體
要求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一連의
움직임은 北韓이 徐々히 強大国外交와 國際政治舞台에 關心을 表明
하기 시작한 증거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前述한바와 같이 日
本 및 西方世界와의 關係改善등으로 變貌되고 있음도 現實化되었다.

아니나 다를가 이번의 第二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도 平壤側은 韓
半島의 緊張緩和를 爲해서는 相互軍備縮少와 減軍이 先行되어야 한
다고 그들의 主張을 固執했다. 뿐만 아니라 政治, 軍事, 外交, 經
濟, 文化등 5개 分委를 同時에 設置해서 一括妥結 方式을 取하자
고 強力히 固執했다. 이와같이 그들의 基本立場을 뚜렷하게 밝히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相對方을 앞으로 어떻게 처할 것인가?
對話의 戰略으로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2. 觀光旅行 實現 協商의 戰略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觀光의 概念自体에 대해서 우리와는 全
然 認識態度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할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社會에는 觀光이란 하나의 유토피아의 환상
의 世界에서 만이 이루어질 人間行態에 속한다고 意識할 것이며
現段階에 있어서는 非社會主義的 非生産的 하나의 反動行爲로 看做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觀光을 제 4의 生活必須品 視하는

觀念은 그들에게는 想像조차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協商提議에 있어서도 共產東獨이 이미 일각부터 西獨과의 사이에서 同族이라는 立場에서 人的交流를 實施해왔던 先例를 들어서 相互交流를 人的往來부터 시작하는 것이 雙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說得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相互間에 마음의 理解가 接近되면 合意를 具體化시켜야 한다.

(1) 合意의 具體性

對共 協商에 있어서는 合意事項은 具體적으로 表示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漠然한 原則上의 合意만을 해놓고서 그를 具體化시킬 段階에 이르렀을때 共產主義者들은 이미 諒解된 事項까지도 違約을 하고 뒤엎은 經驗이 많다는 것은 對共產 外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事例이기 때문이다.

最近에 있어서 北韓과의 對話途中에 엉뚱한 6.25 戰爭의 挑發者가 그 責任을 우리側에 있다고 發言한것 등은 世界의 公論까지도 뒤엎으려는 그들의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는 警鍾의 소리로 볼 수 밖에 없다.

(2) 協商의 主導的 發案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取해야한다. <서로가 彼此의 事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질없는 誤解 不信이 일어난다. 그동안 南北 雙方은 서로가 虛偽宣傳으로 住民들에게 옳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 百聞보다 不如一見이다. 따라서 서로 往来하면서 科学的
客觀的인 認識을 시킴으로써 平和的 統一을 모색하자>고 主張하여
야 한다.

이에 對하여 北韓側은 言必稱 그렇다면 広範한 政治的 交流를
시작 함이 옳다고 할지라도 韓國側은 지난 2월 15일 A.F.P 外信
報道가 伝한바와 같이 西独訪問中인 金溶植 外務部長官이 『現段階
에서는 어떠한 南北韓 平和協商도 時機尙早』라고 한 意義는 政治
協商을 가르킨 것이라고 풀이된다.

즉 『南北韓間의 政治會談 可能性을 考慮하기에 앞서 南北間의
相互信賴의 基盤을 造成하는 것이 時急하며 南北韓關係에서 現在
제일 重要한것은 全韓民族이 겪어지고 있는 分斷의 苦痛을 덜어
주는 것』이다 라고한바 있다.

이것이 서울 平壤間의 關係 正常化 對話는 ① 赤十字會談→
② 南北經濟 및 文化社會的 交流로서의 自由往来에 關한 非政治協
商→ ③ 政治協商이란 우리의 三段階論이다. >

(3) 提案에의 順應誘導

우리의 提案에 北韓側이 順應하도록 誘導해야한다.

그것은 南北韓 共同利益을 爲한것이라는 대력을 느끼게 할 條件
을 提示해야한다.

예를 들면 南北韓 政府當局이 優秀하다고 認定하는 産業戰士(南
韓側의 새마을 指導者 北韓側의 優秀勤勞者)에게 南北韓 視察見學
을 許容함은 生産能率의 向上에 符合되고 善意의 競争에 依한 平

和統一을 促成시킴에 寄與되어 住民의 福祉向上을 期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등이다.

(4) 提案의 融通性, 提案의 融通性이란 다음과 같은 意義를 內包한 것이다.

① 漠然하게 우리側 立場만을 밝히는것. 즉 우리側 戰略을 表面化시키지 않는 態度이다.

② 相對方에게 兩者 択一案을 提議하는것.

③ 相對方의 어떠한 兩者択一案도 考慮할 用意가 있음을 밝히는것.

④ 相對方의 立場에 副應해서 우리側 立場을 變更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이다.

(5) 讓步의 互惠均等性

協商에서 不得已한 양보라 할지라도 <기브 앤드 테이크>의 規律 및 原理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양보란 相對方의 主張하는 立場으로 바꾸어서서 그 主張의 妥當性을 吟味함으로써 寬容을 배푸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고집으로 對峙만 한다면 協商이 進行되지 않는다. 그러나 不得已 양보를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 重要하다.

따라서 一方的인 양보만 한다면 그것은 道德的인 美德보다도 오히려 屈從으로 化해 損害를 보는 不利한 結果가 될것이다.

共產主義者들과 協商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의 양보가 寬大한 協商者로 信賴받는 것이 아니라 弱点의 表示로 看做된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5) 1944년 모스크바에서 「렌드리즈」
協商을 주도했던 「존 R. 딘」將軍은 그의 上司인 「조지 C. 마셜」
將軍에게 悲痛한 書翰을 보내어 그 要旨인즉 소聯사람들은 받지
않고 주는 것을 理解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 結果 우리側이
주는것 까지도 疑心을 갖고 보게 된다고 警告한바 있다. 北韓共
産主義者와의 對話에 있어서도 이러한 態度는 本質에 있어서 共産
主義 信奉者들에 있어서 다를바 없을 것이다.

(6) 協商의 誠實性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意味이다. ①可
能限한 合意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은 合意에 이를 可能性이 所望스러운
水準에 未達될 경우에는 언제나 그條件을 緩和시켜야 한다는 具體的意味를 갖는다.

分明히 당사자가 이러한 基準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相對
方은 이事實을 모르게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相對方은 自己의
條件에 符合하기 전에는 合意를 보지 않겠다는 口實을 찾게될것이
다.

② 어떤 確固한 意圖라도 合意에 可望이 없다고 생각될때에는
固執하지 말아야 한다.

즉 相對方이 分明히 받아 들일 수 있는 最初의 提案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最終的인 立場은 勿論 最初의 提案
도 相對方이 合意할 期待可能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註5) F.C이클레, 協商의 戰略 P.16 (李榮一, 李炯來 共訳)

③ 協商할때는 調停의 規律을 遵守해야한다. 그러므로 讓步를 주고 받아야하는 規律을 違反하게 되면 誠實하게 協商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④ 對話 당사자가 協商하기를 <願하는가> 또는 協商 <하는 체 하는가>는 다르다. 前者는 보통의 해석으로는 <誠實하게 協商한다>는 것과 같은 意味이다. 그러나 後者는 偽善的 宣傳效果를 追求한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그들은 協商에 임함으로써 좋은 印象을 보이기를 바라면서도 論難되는 問題에 대한 合意는 바라지 않는다.

(7) 協商家の 에티켓

「해롤드 니콜슨」은 <理想的인 外交官>의 資質에 관한 자신의 目錄에 조심스런 資質을 다음과 같이 包含시키고 있다.

『協商者는 협상하는 것이 不快한 일로 생각되는 相對方의 우둔, 不正直, 야만성 또는 기만에 直面할 때 화를 내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個人的인 증오, 개인적인 편애, 지나친 熱狂, 偏見, 자만, 과장, 劇化 그리고 道德的 分개를 해서는 안된다』고⁷⁾ 그러나 이러한 忠告에는 보다 興味로운 例外란 것이 항상있다.

西方側 外交官들은 「니콜슨」의 忠告인 感情은 完全하게 조용히 하라는 敎示를 받드시 이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은 強한 感情을 露出시켜서는 안된다는 規律을 遵守한다. 또 禮節慣習을 항상

註7) Diplomacy, P.116 前掲書, 協商의 戰略 P.131

지킨다.

이러한 慣例에 따르면 非難을 하지 말아야 하며 相對方에게 尊敬語를 쓰며 그가 公式會合에서 發言하는 中에는 設惑 不快한 일이 있더라도 退場하지 말아야 하며 合意된 會合에는 慎重을 期해 늦게 到着해서는 안되는것 등의 에티켓을 알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西方側 外交官들은 一般的으로 조용하게 禮儀바르고 尊敬心을 갖는 것은 敵對感情을 減少시키고 合意를 促進시키는 도움이 됨을 믿고 있다. 그들은 相對方이 辱說을 퍼부어도 禮儀凡節을 繼續해서 지킨다. 이 얼마나 紳士다운 行動이 아닌가!

共產主義者들의 行動을 典型的으로 代辯했던것이 「후루시초프」의 UN에서의 狂的醜態에서 엿볼 수 있다.

또 그들의 無禮한 行動은 韓國休戰 協商時에서도 볼 수 있었다.

자기네들의 公式 명칭인 <이승만 도당> <대만의 목두각시>라고 하면서 韓國이나 自由中國이라고 말한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UN代表들은 北韓을 말할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中共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公式的인 共產側 명칭을 誠實하게 使用해 왔었다.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相對方을 궁지로 몰아 일어서는 안된다는 規約이 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벼든다는 格言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寬容을 배운다면 결국 友好關係에 의

해 報答을 받게 될 것이다. 「호루시초프」가 말했듯이⁸⁾ 이것은 <호주머니에 동전을 한 닢 더 넣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共産國家의 協商者들에게 그와 같은 態度는 오히려 例外的인 것이다.

우리가 對北 協商에서 共産主義者들과 對話를 나누며 合意點을 發見하기 爲해서는 위와 같은 心理的 差異와 計略의 樣相을 미리 알고서 接觸해야만 하기 때문에 西方側의 戰略的 「에티켓」을 紹介하였다.

끝으로 우리의 南北調節委員會의 協商은 이른바 「로버트 슈망」이 말한 <새로운 會談形態>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雙方은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 南北사이의 各分野에 걸쳐서 서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데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⁹⁾ 이것이 바로 共同社會精神의 表現이라고 풀이된다.

共同精神이라 함은 당사자 相互가 相反된 利益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共同利益에 重點을 두고서 相互間의 個別的 利得과 損失을 주고 받기 보다는 共同事業의 利益을 最大限으로 獲得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共同精神下의 協商形態는 外部로부터의 共同的 敵으로 因해서 統合이 促進되고 있다. 共同精神의 維持에 도움이 되는 것

註8) KPSS 22 차 共産黨大會Ⅱ 473-474

9) 南北調節委員會共同委員長제 2 차會議共同發表文 ⑤

은 바로 瓦惠精神에 따른 各当事者の 理解이다. 이와같이 雙方 当事者들이 共同努力에 參與해 나가면 마침내는 相互 제휴를 必要로 하게 되며 그것은 相互好意에 依存케 되며 이것이 南北韓 同胞 愛의 啓發에 연결이 된다.

이로써 오늘의 寬容性있는 行動은 來日을 為한 信賴確保로 發展 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雙方은 安心하고 合意를 原則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細部事項은 專門家나 技術者들께 맡겨 줄 수가 있다.

南北韓의 觀光旅行의 實現을 為한 協商은 이러한 共同精神에 立脚하면서도 前述한 戰略的 各 條件을 疎忽히 하여서는 아니 될 特殊한 條件이 前提되어 있다고 본다.

六. 結 論

1. 南北韓相互往來에 關한 合意書(提議試案)

(1) 南北韓 雙方은 1972년 11월 4일의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제 2 차會議 共同發表文의 基本精神에 立脚하고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合意書 (2)의 (다) 및 (3)의 (다)에 基礎하여 經濟文化 社會分科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은 事業을 推進發展시키기로 合意한다.

(2) 南北相互往來에 關한 隨伴招待觀光

(가) 雙方은 南北사이의 經濟 文化 및 社會的 交流의 한 方法으로서 雙方이 이미 部分的 實施를 慣例로 하여온 相互往來에 關한 事項을 百聞은 不如一見이라는 共同信念에서 더욱 擴大시켜 相互理解를 深化시킴으로써 하루빨리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나) 雙方이 南北對話의 會合 或은 雙方이 合意한 各分科事業을 推進하기 爲한 會議에 參席할 目的으로 그 代表 및 隨行員 資格으로 相對方의 管轄區域 或은 共同區域에 事前協議에 依한 合意下에서 旅行할때 旅行의 主目的에 支障이 없는 限 主管側의 場所 指定과 日程表에 依하여 그의 責任下에서 招待觀光을 하도록 한다.

(다) 이觀光旅行中の 宿食 및 交通手段의 提供과 其所要費用은 主管側의 負擔으로 한다.

(라) 隨行員中에 外國의 報道通信員이 加担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다.

(마) 觀光對象地域은 指定場所 外에 出發前에는 希望地域을 變更 또는 追加申請할 수 있으나 主管側의 裁量으로 이를 決定한다.

(바) 이觀光에 關한 修正 또는 補充事項은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決定할 수 있다.

(사) 이觀光旅行을 隨伴招待觀光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南北相互往來에 關한 視察見學觀光

(가) 南北相互間의 發展相을 觀國之光으로 보기 爲한 視察見學으로서 申請側에서 派遣豫定者의 身分 및 其他 人的事項을 記載하여 團體構成員으로 하고 그名單을 相對方에게 通報하여 主管側에서 이를 審査後 旅行日程 및 指定場所를 回報하여 合意가 이루어지면 主管側의 統制와 責任下에서 隨行招待觀光에 準하여 이를 視察見學시키도록 한다.

(나) 이 觀光의 申請側에서는 主管側의 承諾通報後 所定日程表에 따라 出發 및 歸還을 共同管轄區域에서 引繼 또는 引受하여야 한다.

(다) 이 觀光旅行團의 構成 및 統率은 申請側의 裁量에 依하고 主管側 統制權은 視察見學에 關聯되는 團體行動時에 限하기로 한다.

다만 旅行中의 團體行動內部 秩序에 關한 모든 事項은 申請側 引率責任者의 指揮에 따라야 한다.

(라) 이 觀光旅行中의 觀光者의 身辺保障은 主管側이 이를 負擔

기로 한다.

다만 視察團員中の 個別行動 或은 離脫落後 등의 復歸命令은 申請側の 責任下에서 한다. 이러한 有故時의 是正團束은 雙方이 發見即時로 이를 行使할 수 있다.

(마) 이 觀光旅行者의 身分은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의 認定과 保證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바) 이 觀光旅行을 視察見學觀光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사) 이 觀光에 關한 事項의 修正 또는 補完은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改正할 수 있다.

(4) 隨行招待觀光 및 視察見學觀光의 實施에 依하여 相互間에 滿足스러운 成果를 거두었다고 雙方이 認定하여 그 合意를 拂때에는 다음의 觀光을 併行해서 實施하기로 한다.

(5) 南北住民中에서 自己 본 뜻이 아닌 動亂으로 因하여 居住地를 離脱함으로써 父母兄弟間에 南北으로 離散된者 中에서 現在 相對方 地域内에서 生存하고 있는것으로 믿고있는 離散家族을 相逢面會코저 할때에 管轄政府 當局이 相互再會의 機會를 마련해 줌은 民族的 良心과 人道的 見地에서 또 南北關係改善을 爲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認定하여 그 實現을 다음과 같이 履行하기로 한다.

(가) 南北住民中에서 離散家族의 生存者를 相逢再會코저 希望하는者는 本意아닌 越南 또는 越北하였다는 事實을 證明할만한 証拠를 添附하고 相對方 管轄區域内에 生存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面會相對者를 指定하여 管轄行政當局에 一定한 期間内에 申請하도록 한다. 다만 여기서의 管轄行政當局의 權限은 經濟 社會 文化 分科

위원회 管轄側 委員이 代行할 수 있다.

(나) 前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委員會 또는 行政當局은 審査委員會의 書面審査를 거친後 認定 與否를 決定한다.

(다) 前項의 申請側 當局은 申請者 認定을 받은 者를 一定한 人員數로 團體名單을 作成하여 이를 相對方 分科委員會에 提出하여 對象者의 生存與否의 確認 및 相逢機會의 賦與 與否의 決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라) 前項의 申請을 받은 分科委員會는 對象者를 書面審査하여 確認與否를 決定하여 申請한 委員會에 回報하고 相逢再會의 招請 日程 및 場所를 指定하여야 한다.

(마) 前項의 回報을 받은 申請側 委員會에서는 招請者 名單에 있는 希望者 및 相當數의 引率責任者로써 旅行團體를 構成하여 所定日程에 依한 出發時日을 相對方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바) 前項의 通報를 받은 委員會는 團體名單의 人員을 團體旅行者로 招請하여야 한다.

(사) 前項의 招請通報를 받은 申請側은 日程表에 依하여 旅行團을 引率하여 共同管轄區域에서 相對方에게 引繼 또는 帶同하여야 한다.

(아) 引繼를 받은 招請側은 面會對象者를 미리 指定場所까지 案内하여 待機하도록 하여 面會申請者와의 合席 再會相逢하도록 하여야 한다. 合席面會場에는 雙方의 引率責任者가 立會할 수 있다.

(자) 再會相逢을 마친後에는 面會 對象者의 管轄政府의 首都(서울 또는 平壤) 市街地의 視察觀光을 시킬 수 있다.

이의 視察觀光旅行은 南北雙方の 引率者가 共同으로 統制하여 申請者 및 対象者는 各々 自己側 引率責任者의 命命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차) 首都視察을 共同團體로 마친後에는 申請者만을 雙方引率責任者 共同責任下에 共同管轄區域까지 引率引繼하기로 한다.

(카) 이 旅行을 相逢招請觀光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타) 이 旅行에 關한 修正 또는 補充事項은 雙方の 合意에 依하여 改定할 수 있다.

(따) 이 觀光旅行의 實施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申請者에게 負擔케 할 수 있다.

2. 結 言

以上에서 南北韓觀光旅行의 實現에 焦點을 두고 여러 側面에서 可能性을 考察해 보았다. 그러나 같은 分斷國이면서도 東西獨逸에 있어서는 이미 東西兩國의 住民들이 往來하면서 分斷에서 招來된 民族的 苦痛을 現實的으로 解消시키고 民族間에서 어느 程度의 共同生活圈化로 悲痛을 모면하게 되었다는 事實을 우리 南北韓 指導者들은 다시 한번 反省할 必要가 있다.

獨逸에 있어서는 美, 英, 仏, 蘇의 四大大國이 獨逸의 運命을 決定할 수 있는 關鍵을 쥐고 있는데도 東西獨逸의 계르만 民族은 그들의 活路를 現實的 狀況속에서도 슬기롭게 克服하고 打開해 나가고 있다.

況且 悠久한 半만년의 歷史와 平和愛好의 韓民族이 東方의 禮儀之國으로 自負하면서도 同胞의 苦痛을 덜어 주는데에 이제까지 實踐의 段階에 이르지 못한것은 實로 痛歎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 敵對視하는 異邦人에 대해서까지도 招請觀光을 시키면서 同族에게 그렇게 冷淡한가! 勿論 거기에는 思想 理念 體制上의 相極的인 差異에서 일것이나 獨逸民族에게 배워야 할것이 있지 않을가 생각이된다. 獨逸의 東西間과 韓國의 南北間에는 두말할것없이 同族相殘이란 民族戰爭이 있었냐 없었냐의 差異는 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났고 따라서 過去에만 執着할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할때가 왔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날의 回顧를 버리고 앞으로 祖國復興과 繁榮을 向해서 南北이 共同運命에 処해있다는 嚴然한 事實이 必然性을 지니고 있다는 歷史的 潮流의 方向을 大悟覺醒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러한 立場에서 韓半島의 南北 當局者는 祖國의 새로운 歷史創造에 專念해야 할때라고 믿어 疑心안는다.

따라서 南北間의 人的交流를 積極的으로 推進함으로써 相互理解를 促進하도록 提議하고 必要하다면 南北 兩 首腦接觸도 試圖함으로써 時期的 失期가 되지 않도록 함이 平和的 統一에의 捷徑임을 깨닫게 된다.

今秋의 UN對策에 있어서의 南北對決과 그를 前後한 北韓側에 同調할 實利外交의 물결이 내다보이는 現情勢下에서 우리 韓國側의

對北 政策에 있어서도 積極的으로 퍼지 않는限 現狀대로 沈滯狀
態가 高질화되어 終着點은 東西獨逸의 再版으로 落着지어지지 않을
가 憂國之心에서 참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南北關係에 있어서 우리의 嶄新하고도 現實的인
南北人士의 人的 交流를 提議함으로써 UN에 있어서의 不上程의
名分과 合理的인 理由로도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 具體的 方案은 이미 前述한 提議試案의 하나의 代案으로
金日成招請의 提議도 劃期的인 推進策의 가장 効果的 方法의 하
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赤十字會談의 離散家族 찾기라든지 前述한 相逢招請觀光旅行의
推進이 잘되지 않을 때에는 위의 代案을 提議함도 外交戰略上
얻는것이 잃은것 보다 많을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떻든 南北韓間의 問題는 結局은 우리의 마음의 接近如何에
따라서 遲速의 結果를 얻게 될것이라는 信念에서 論述하였다.

